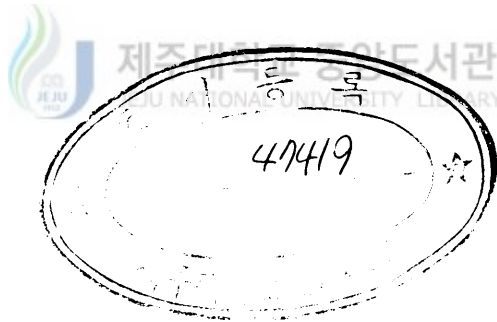


17
379.2
773812

석사학위논문

미술치료가 정인지체아의 소근육 운동향상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김 용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미 선

1999년 2월

미술치료가 정인지체아의 소근육 운동향상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김 용 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8년 11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미선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998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미술치료가 정신지체아의 소근육 운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김 미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용 환

미술치료(Art therapy)의 기본전제는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창조과정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집중력을 강화시키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지체아의 소근육운동발달(fine motor)과 눈과 손의 협응력(eye-hand cordination)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 실시 후 연구자의 개입이 정신지체아에게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단일 사례연구를 선택하였고, 사례연구는 모 복지회관에 통근 치료중인 7세된 정신지체아로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였다. 개입기간은 1997년 9월 9일부터 1998년 5월 28일까지 단기사례로 계획하여 주 2회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총 50회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1회 개입시간은 30분으로 하였다.

초기단계는 1회에서 10회까지 미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관계(rapport)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중기단계는 11회에서 41회까지 소근육 운동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 본 논문은 1999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개입단계로 눈과 손의 협응력을 높일 수 있는 표현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 종결단계는 42회에서 50회까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표현활동과 현실감을 높여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는데 목표를 두었다.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한 본 사례연구는 미흡한 조건 속에 진행되었으나 미술표현활동을 통해 소근육 운동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자유로운 감정표현과 정서적 불안이 보다 완화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고 추후지도로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접근이 필요하겠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	1
2. 연구목적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정신지체아의 소근육 운동능력	5
2. 미술치료의 인지적·발달적 접근	8
3. 정신지체아의 미술표현특성	13
III.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연구설계	18
3. 측정도구	18
4. 중재 프로그램	19
5. 연구절차	22
6. 자료처리	22
IV. 결과 및 해석	23
1. 회기별 프로그램과정	23
2. 회기별 프로그램진행결과	39
3. 소근육 운동향상에 미치는 효과	51
V. 결론 및 제언	53
참고문헌	55
Abstract	60

표 목 차

표 1. 발달적 미술치료의 주요이론	12
표 2. 시각운동통합검사의 내용	18
표 3. 시지각발달검사의 내용	19
표 4. 미술치료 프로그램	20
표 5. 미술치료 사전·사후변화요약	41
표 6. VMI와 DTVP하위영역별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	51



그림 목 차

그림 1. 테두리법	42
그림 2. 지점토로 만들기	42
그림 3. 색종이 찢어붙이기	42
그림 4. 색종이 접기	42
그림 5. 물감붓기	42
그림 6. 선긋기 -직선	42
그림 7. 도형 그리기	43
그림 8. 도형 자르기	43
그림 9. 도형 만들기	43
그림 10. 집,나무꾸미기	43
그림 11. 면봉으로 그리기	43
그림 12. 스크래치	43
그림 13. 플라쥬	44
그림 14. 데칼코마니	44
그림 15. 장갑 만들기	44
그림 16. 자유화	44
그림 17. 색테이프 끼우기	44
그림 18. 모방화 - 가족	44
그림 19. 모방화 - 기린	45
그림 20. 모방화 - 꽃	45
그림 21. 모방화 - 닭	45
그림 22. 스폰지로 무늬꾸미기	45
그림 23. 찰흙으로 만들기	45
그림 24. 가방 만들기	45
그림 25. 모방화 - 오리	46

그림 26. 종이컵 꾸미기	46
그림 27. 지점토 부조만들기	46
그림 28. 물감으로 색칠하기	46
그림 29. 먹물로 그리기	46
그림 30. 찰흙으로 만들기	46
그림 31. 모방화 - 풍경	47
그림 32. 모방화 - 인어공주	47
그림 33. 과일 그리기	47
그림 34. 엄마 아빠 표정그리기	47
그림 35. 색종이 접기	47
그림 36. 펀치로 뚫기	47
그림 37. 자기 신체그리기	48
그림 38. 가면 만들기	48
그림 39. 집,나무,사람 그리기	48
그림 40. 입체-집 만들기	48
그림 41. 찰흙으로 신체 만들기	48
그림 42. 나뭇잎 찍기	49
그림 43. 손 그리기	49
그림 44. 집,나무,사람그리기	49
그림 45. 촛농 떨어뜨리기	49
그림 46. 선생님 그리기	49
그림 47. 목걸이 만들기	50
그림 48. 골판지로 찍기	50
그림 49. 물감 튕기기	50
그림 50. 지점토로 만들기	50
그림 51. 밀가루점토로 만들기	50
그림 52. 자유화	50
그림 53. VMI와 DTVP의 변화그래프	51

I. 서론

1. 연구의 의의

현대 우리사회는 일부 부적합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손상받고 있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손상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계속 연구 개발되어서 현재에는 언어적 심리치료 이외에도 미술, 음악, 연극, 시, 무용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건강하게 태어나도 생후 2~3년 사이에 장애아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양육자가 자주 바뀌거나 잘못된 후천적인 양육환경과 교육의 문제가 있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발달이 불균형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모간의 갈등이나 고부문제, 또 이혼으로 가정이 깨지는 등 불안정한 애착관계형성과 부모의 정서적인 불안,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깊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느냐 비정상적으로 자라느냐 하는 문제는 최초의 대인관계가 이루어지고 '애착'(attachment)¹⁾형성이 되는 시기에 결정된다. 그리고 언어와 정서가 발달하여 마침내 한사람의 독자적인 자아가 형성되어야 뇌의 기능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신뢰감 획득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²⁾에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갖지

1) 애착 : 사람이나 동물이 자신과 다른 특정한 개체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를 말하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속한다. 즉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영아와 모친간의 애정적 유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안정적 애착유형은 접근추구나 접촉유지는 있으나 회피나 저항이 없는 영아들이며, 불안정 애착유형은 회피나 저항반응을 나타내는 영아들이다.

2) 결정적 시기:인간이나 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중 어떤 행동은 그 행동의 발달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점을 의미한다.

못한다면 결국은 사회전체를 불신하게된다. 이 불신감은 교정이 불가능한 불가역성의 성격을 띠고 있을 수 있다. 3)

신생아는 맨 처음 주로 근육운동과 반사운동만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숙과 학습에 의해 점차 신체, 운동,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발달을 이루어 간다. 유아기는 심신의 모든 기능이 미분화상태에서 분화와 통합이 급속히 행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심신의 모든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어릴 때일수록 크고 심각하며 그 시기에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결함이 지속될 수 있다. 4)

장애유아는 어릴 때 방치해 두면 제2의 장애나 주장애에 연관된 다른 장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발달하는데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은 점점 더 복잡한 개념을 습득해 가는 아동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발달주의자들은 아동이 환경을 경험하고 학습하려는 내적 동기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믿는다. 발달을 촉진함에 있어서 경험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발달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발달은 성숙의 결과로서 먼저 오고 능력은 스스로 주도하는 놀이, 탐험, 연습을 통해 얻어진다. 따라서 조기교육은 발달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5)

그리고 피아제에 의하면 학습은 인지발달에 후속되는 것이므로 학습내용이 의미있게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인지과정과 개념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아의 교육과정의 구성과 편성에 있어서 그들의 지적발달 수준과 성숙에 맞는 과제를 편성해야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조복희 외(1987), 「인간발달-발달심리적 접근」, 박문사, p.175.

4) 김경중 최인숙(1992), 「유아발달심리」, 형설출판사, p.13.

5) 도널드 베일리, 마크 윌러리(1995)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이소현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8.

어린이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게된다. 크레파스나 붓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을 만들 때 눈과 손의 협응력을 통하여 크고 작은 근육의 조절능력을 발달하게 해주며 어린이의 시각·촉각도 발달하게 된다. 미술활동은 탐색하고 경험하고 어린이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해봄으로써 성취감을 갖게하며 가치있는 자아개념이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물에 대한 지각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6)

미술활동은 특수아동 등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며 미술의 좀더 기능적인 면을 살펴본다면 읽기, 쓰기, 소근육 운동발달, 인지시각능력 등을 포함한 제반 능력들을 증진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며 찰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므로 언어가 배제된 상태에서 사물의 감각을 익히며 그에 따라 언어가 수반되면 그 사물의 가지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7)

소근육 운동능력 및 눈과 손의 협응력향상은 못뽑이, 구슬 꿰기, 따라그리기, 색칠하기, 찢기, 퍼즐활동 등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본 연구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의 소근육 운동과 눈과 손의 협응력⁸⁾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인지체아의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소근육운동과 눈과 손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6) 유아미술연구회 편(1993), 「유아미술교육」, 박문사, p.22.

7) 한기정(1997), 「아동미술과 특수아동미술」, 교육과학사, p.115.

8) 눈과 손의 협응 : 시각과 손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움직이는 능력으로 자조활동, 놀이, 인지와 학업과제의 구성요소이며 필요 전제 조건인 동작이다. 상호적인 이끌기와 따라가기를 촉진하기 위한 예로 퍼즐, 블록, 모양맞추기, 줄에 꿰는 장난감, 막대꿰기, 도형맞추기, 쌓기 장난감, 크기순으로 컵 포개기, 집짓기 등을 들 수 있다.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가능급 정신지체아 1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의 소근육 운동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둘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의 눈과 손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알아본다.

셋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표현활동과 현실감을 높여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높이는지 알아본다.

3. 연구의 제한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1명이라는 아주 적은 수이기 때문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의 소근육 운동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전체 정신지체아동에게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이 여아이며 미술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경우여서 많은 효과를 나타냈지만 성별, 나이별, 증상정도별, 미술흥미도 여부에 따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셋째, 소근육 운동향상과 눈과 손의 협응력 향상에만 초점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신지체아의 소근육 운동능력

1) 정신지체아의 개념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개념 속에는 지능발달이 늦다고는 하나 교육이 가능하며 개개 아동이 갖고 있는 소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정신지체협회(AAMD-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의 정의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정신지체의 특성을 살펴볼 수 가 있다.

첫째, 정신지체는 발달기에 야기된다.

둘째, 적응행동의 결함을 가진다.

셋째, 평균이하의 지적기능을 가진다.⁹⁾

DSM-IV(미국정신의학회 기준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에서는 정신지체의 필수증상으로 유의하게 평균수준 이하에 속하는 전체적인 지적기능으로서 다음 기술영역 중 적어도 두 영역에서 적응기능에 심한 한계를 동반한다. (: 의사소통, 자기돌봄,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이나 대인관계의 기술,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자기관리, 기능적 학업기술, 일, 여가, 건강, 안전.) 발병은 18세 이전이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¹⁰⁾

1980년대 ‘정신지체’ 개념이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orders)¹¹⁾’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정신지체 그 자체가

9) 김영한(1990), 「정신지체아의 심리」, 특수교육, p.8.

10) 미국정신의학회 편(1995), 「DSM-IV, 정서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하나의학사, p.62.

11) 발달장애:발달의 여러분야, 즉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심각하고 광범위한 장애가 있거나 상동증적인 행동 및 관심, 활동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런 상태의 정의하는 질적인 장애는 개인의 발달수준이나 정신연령에 비해 명백하게 이탈되어있다.

가지는 복잡성의 문제로서 특히 적응행동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그 측정의 신뢰성,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둘째 학습장애¹²⁾(Learning Disorders), 자폐증(Autistic Disorder)¹³⁾ 등 정신지체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관련 장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¹⁴⁾

2) 정신지체아의 소근육 운동능력

정신지체아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교육영역에는 운동기능(Movement Developme), 감각운동기능(Sensory-motor Developme), 지각운동기능(Perceptur-motor Developme), 개념형성기능(Conceptual Skill), 자립기능(Self-help Skill) , 언어교육 등이 있다. 운동기능에는 대근육운동기능(Gross-motor)과 소근육 운동기능(Fine-motor)으로 구분된다.¹⁵⁾

일반 아동의 신체발달은 대근육 운동력에서 소근육 운동력으로 발달한다. 학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것은 소근육 운동력이며 이는 눈과 손의 협응을 통해 손동작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제, 즉 반복적인 조작행동을 수행할 때 시각과 손의 운동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이는 능력이다. 유아기에는 기초적인 운동기능이 현저하게 발달하고 그 후 아동기에는 운동기능의 내용면에서 속도, 정확성, 호응성, 역량 등이 더욱 발달하여 복잡한 운동기능이 학습하게 된다. ¹⁶⁾

12) 학습장애 : 중추신경체계의 어떤 부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나는 지각과정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며 어린이나 모든 수준의 나이와 지적기능을 지닌 젊은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원인을 지닌다.

13) 자폐증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거나 발달이 장애되어있고 활동과 관심의 종류가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눈마주치기, 얼굴표정, 몸 자세와 몸짓을 사용함에 있어서 현저한 장애가 있고 친구관계 발달이 실패와 자발적으로 다른사람들과 기쁨, 관심, 성공을 나누지 못하며, 사회적, 감정적 상호교류가 결여, 구두 언어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결여된다.

14) 김정권 외 (1998), 「정신지체아교육과 지도의 실제」, 양서원, p.30.

15) 한기정(1984),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아동의 조기교육」, 보육사, p.155.

16) 김희경(1992), “뇌성마비 아동의 조형활동 프로그램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p.5.

소근육 운동은 몸의 전체를 움직여 큰 운동을 하는 대근육 운동과는 달리 몸의 상지, 특히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는 운동을 말한다. 소근육 운동은 눈과 손의 협응, 두 손사용의 협응, 사물의 조작력, 손가락의 민첩성과 힘의 4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눈과 손의 협응, 두 손 사용의 협응을 통하여 사물을 조작하고 나아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배워나간다. 또한 이러한 소근육은 아동의 지각능력, 모방기능과 관계가 깊으며 신변처리 기술과 쓰기학습에 필수적인 요소로 아동의 행동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17)

외계로부터의 정보는 대부분 시각을 통해서 입수된다. 따라서 시각계로 인한 정보처리 능력의 변화와 발달은 지적능력의 발달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시각계에서 눈과 손의 협응발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린이가 2세를 경과할 무렵에 눈과 손의 협응관계는 줄곧 진행해서 손이 주가 되고 눈은 손에 의한 정보에 응하는 협응관계에서 눈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모니터로서의 기능을 획득해 간다. 이렇게 되면 외계로부터의 시각정보에 의하여 어린이는 사물에 대한 예상을 세우게 되고 행동의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눈과 손의 협응력발달, 특히 눈에 의한 정보처리능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안구운동과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경계의 발달과 뇌의 기능적 성숙을 촉진시킨다는 기대를 갖게된다. 18)

그림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운동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긋기 그림의 발달에서도 역시 아동의 운동발달의 리듬이 표현되고 선긋기 속에서 인간의 육체적 운동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사이에 상호작용이 드러난다. 발달순서는 근육의 균형조절과 운동의 반복에 따른 숙달에 의해 상응한다. 전체 팔의 사용부터 시작하여 팔꿈치의 사용, 마침내 손과 손가락의 사용까지 해당된다. 19)

17) 김정권 외 (1993), 「정신지체아지도의 이론과 실제」, 성원사, p.121.

18) 김정권 외 (1998), 전개서 p.86.

19) 한스 마이어(1997), 「미술교육의 세계」, 김 정 역, 서울:교육과학사, p.65.

2. 미술치료의 인지적·발달적 접근

1)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Art therapy)는 창작을 통한 내면세계의 외면화 과정 속에서 개인의 갈등적 심리상태나 정서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연류된 갈등관계에 있는 심리, 정서적인 요소를 창작을 통하여 조화롭게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의 심리적인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병리적인 정신구조를 재편성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즉 “창작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키므로 원만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이라 하겠다. 20)

미술치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편이며 미술이 분야가 다양한 것만큼 미술치료의 분야도 다양해서 회화, 조소, 공예 등 여러 방법이 쓰일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실시되기도 하고 집단이 힘으로 합쳐 공동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작품자체만이 아니라 제작과정, 진행 등 미술치료에의 참여활동이 모두 치료의 한 부분을 이룬다. 그림은 언어이전의 사고형태이므로 핵심적인 내적경험이나 환상을 나타내는데 있어 언어보다 유리하고 의식적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무의식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진단상의 장점도 있다. 즉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서 언어성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에서 지금까지 상실, 왜곡, 방어적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상, 자기자신의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자기 동일화, 자기실현을 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21)

미술치료는 인간의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서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자발적인 미술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내적세계와 외적세계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리는 사람을 객관화 할 수 있고 영속적이어서 그

20) 김진숙(1995), 「미술치료란 무엇인가?」, 미술세계 10월호, p.141.

21) 한국미술치료학회 편(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동화문화사, p.34.

림을 차례로 모아 환자가 다시 보게되면 감정체험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깨달을 수 있으며 공간적인 모험으로 표현할 수 있고 창조적인 힘을 제공한다. 22)

2) 미술치료의 인지적 접근

미술치료에 있어서 인지적 접근은 ‘인지’²³⁾가 외부의 자극을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인지는 언어와 관련이 있고 인지와 언어는 미술의 상징성과 관련이 있다는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지는 창의성과 분리될 수 없으며 생각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매체로서 미술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4)

어린시기에 보이는 탐색적 태도와 호기심의 정도는 유아의 인지발달과 성격형성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유아기에 적극적인 탐색자였던 아이들은 후에 호기심이 많고 독립심이 크며 창의적인 아동이 된다. 피아제(J.Piaget)의 유아의 인지발달에 여러 가지 미술활동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가장 순수하게 동화와 조절을 이루어나간다.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글러(E.Zigler)는 정신지체아의 인지발달이 발달적 용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신지체자라는 보다 낮은 발달 수준에 도달한다할 지라도 정상인과 똑같은 인지과정을 거쳐간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같은 생활연령의 동료들과 비교할 때는 인지적으로 지체되어 있으나 같은 연령의 정상아동들과 비교하면 이 두 집단은 이론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기능한다. 25)

3) 미술치료의 발달적 접근

미술치료의 발달적 접근은 프로이드(Freud)와 에릭슨(Erikson), 피아제

22) 김동연(1994), 「미술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미술세계 4월호, p.144.

23) 인지 : 지각, 기억, 생각의 일반화, 평가, 추리의 최소한 5개의 과정들로 구성되어있고 이러한 과정들은 도해, 영상, 기호, 개념, 법칙등의 조작을 포함한다.

24) 한국미술치료학회 편 (1994), 전개서, p.55.

25) 윌리엄 M. 크릭생크 편(1985), 「특수아동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162.

(Piaget) 등의 이론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이론들을 기초로하여 구성된 미술치료 이론은 정상인이나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발달적 미술치료(Developmental Art therapy)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낸 윌리엄스(Williams)와 우드(Woods)는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은 정상이나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발달적 미술치료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거둔바 있다. 26)

발달이론들 중 심리 - 역동이론은 일명 정신분석이론이라고 불린다. 이 이론의 창시자는 프로이드다. 그 후 많은 학자들(Jung, Adler, Horney, Fromm 등)이 프로이드의 기본 관점을 계승하면서 세부적인 면에서는 구별되는 견해들을 내놓았다.

제1단계인 기본적인 신뢰감 대 불신감의 형성기인 프로이드의 이론의 구강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출생에서 2세까지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때 형성되는 신뢰감이 이후의 사회관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회화 표현의 형태는 그 자체의 일정한 규칙을 따라 한다. 즉 점점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 단순한 패턴으로 유기적으로 성장한다. 지각발달이론의 대표자인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주지주의론²⁷⁾과는 반대로 “어린이들은 아는 바가 아니라 보는 바를 그린다”고 한다. 유아기의 발달단계에서 정신의 주된 특징은 전적으로 감각경험, 즉 지각의 범주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지적 추상의 수준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표현이 감각과 지성이 포함된 시지각의 발달과정이라는 것이다. 어린이의 미술표현은 지능발달이 아니라 지각과 사고가 분화되는 발달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발달론에서는 유아기의 선화가 점-직선-사선-지그재그선-나선형-원의 순서로 발달한다. 여

26) 한국미술치료학회 편 (1994), 전개서, p.395.

27) 주지주의론 : “어린이들은 그들이 보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 아는바를 그린다.”는 헬름 홀츠(Herman von Helmholtz)가 1860년에 보급한 사상의 잔재다.

기에서 원은 상징적 표현의 시작이며 연령별로 보면 3~5세는 낙서기, 5세까지는 전도식기, 6~9세까지는 상징기, 10~14세는 의사실기로 발달해간다. 입체와 원근이 나타나고 14~19세에는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결정기가 된다. 결정기에서는 시각적 표현과 촉각적인 표현이 각각 나타나고 이것들이 복합되는 중성적 표현도 있다.²⁸⁾ 대체적으로 정신지체아는 전도식기(4~7세)와 도식기(7~8세)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일부만이 초기 사실기(9~11세)에 도달한다고 보며 초기사실기 이상의 단계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반아동에 비해 그 발달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상아동에 비해 표현능력의 편차가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²⁹⁾ 발달적 미술치료에의 주요이론들은 다음 표1과 같다.



28) 루돌프 아르하임(1995),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서울:미진사, p.164.

29) 윤정방(1994), 「정신지체아의 묘화표현특성연구」, 제3회 미술치료연수회자료집, 한국미술치료학회, p.94.

표 1. 발달적 미술치료에의 주요이론

이론가	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발달과업		
	0-2세	2-4세	4-7세
Erikson	신뢰감 vs 불신감 경험의 일관성 격리	자율성 vs 수치감 (2-3세) 통제와 해방(자율) 의 학습	친밀감 vs 죄의식 (3 - 5세) 옳고 그름이 발달 부모로부터 받은 금지를 내재화
Piaget	감각운동기 신체를 통한 탐색 시행착오과정 대상영속성	전조작기(2-7세) 자아중심적 상징적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배움 명료성을 학습	
Lowenfeld		조작적 무작위의 난화 통제된 조작 초기형상	전도식적 사람의 표현 두족류 집, 나무, 동물 특별한 도식이 없어짐
Hartley, Frank, & Goldenson	탐색과 실험단계 조작하기 물놀이, 불럭놀이	생산-과정단계 의도없는 조작과정 우연으로 형태를 창조 결과 그자체가 중요 설명은 하지 않음	심상의 표현단계 의도가 있음 상상이 시작됨
Golomb	행위를 즐기는 단계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 는 지에 관심	낭만적 단계 형태를 가진 것처럼 매체를 이용	
Rubin	조작단계 물질들을 입안에 넣기 형태화 단계 좀더 의식적 통제	형태와 관련된 이름짓기 대상의 성질을 표현 내재화된 단계 경계선 창조	실험단계 일을 행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탐구
Williams & Wood	단계 1 만족감을 가지고 환경 에 반응 동기유발을 수단으로 미술매체를 야기시키 는 감각 신뢰를 배움	단계 2 성취감을 주는 능력을 배움 기초미술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이 출현 하기 시작	

한국미술치료학회 편(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동아문화사, p.394.

3. 정신지체아의 미술표현 특성

미술교육은 개개인의 갖고있는 개성신장과 창조능력의 개발, 정서적인 미의식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미술교육은 정상아보다는 장애아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목이 될 것이며 미술을 통한 치료적인 효과면에서도 매우 뚜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지체아동에게 있어서 미술치료는 정서적 안정과 미적감각 개발은 물론 나아가서 치료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로웬펠드(V. Lowenfeld)는 정신지체아의 미술표현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장속도는 느리지만 정상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준다.

둘째, 단조롭고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손의 운동기능은 뒤지지 않는다.

셋째, 형태나 주제의 고착적이고 반복적인 표현에 빠져있으며 실험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넷째, 지각활동연상에까지 확대된 에너지의 결여를 보여주는 빈약한 공간적 형태의 특징이 있다.

다섯째, 촉각적 형태의 경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 표현공간에 있어서 자기의 신체를 기준으로 한 시각 (viewpoint) 중심이다.
- 입체적 표현(modeling)에서 부분이 분해된 통일성 없는 부분적인 방법(Piece-method)을 쓴다.
- 특정의 경험으로 동기화 하면 형태를 감정적으로 과장, 생략, 왜곡한다.
- 그림에서 공간깊이의 표현이 결여되어있다.
- 선화에 있어서 우직하게 강하고 시작과 끝이 불확실한 애매한 선

처리를 한다.

- 색채를 감정적으로 사용하며 탁한 색을 마구 사용한다.
- 촉각적이고 근육운동, 감각적인 의식을 표현한다. 30)

정신지체아의 미술표현은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수평적 진행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김 정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아동은 거의 지능지수 50이상을 표현시키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뇌와 눈과 손놀림의 세 가지 불협을 이루는 것, 즉 안수협응에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31)

1) 공간구성력

화면의 공간 구성력이 단순하다. 지능지수가 50수준일 경우 나이가 20세 가까이 되어도 정신연령은 7세내지 9세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상징적, 도식적 표현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화면의 공간구성도 매우 단순하고 형태면도 단조롭고 빈약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상아동의 형태표현 발달과 같은 패턴을 보이긴 하지만 그 발달속도가 매우 느린 특징이 있다. 또한 정신지체아동은 인지구조의 미분화 특징 때문에 화면 구성이 변칙적이다. 즉 화면을 하나의 전체로서 의식은 전체적 구성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잘해야 도식적 공간표현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더구나 위치개념과 공간관계 개념 등이 잘 발달되지 못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32)

윤정방의 교육가능정신지체아의 묘화발달 단계 및 인물화 표현특성 연구에 의하면 정신지체아는 정상아에 비하여 그의 연령수준에서 두단계 이상 늦게까지 착화기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환경과 그림을 관계지우는 것이 늦으며 지

30) 김춘일 (1985), 「아동미술론」, 서울:미진사, p.241-242.

31) 김 정 (1992), 「아동회화의 이해」, 창지사, p.487-488.

32) 여광웅(1998), 「장애아동의 심리와 미술」, 제20회 미술치료연수회자료집, p.220.

능이 열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형태와 공간 지각개념이 미성숙하여 정상아동에 비하여 좀 더 늦게 시작하여 긴 시간동안 각 단일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개념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물화표현에서 과대, 과소, 탈락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33)

김삼성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지체아의 공간개념 발달단계는 정상아와 마찬가지로 순서이지만 각 단계가 나타나는 연령과 변화의 속도가 다를 뿐이며 발달양식은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정신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준도 더불어 증가한다. 34)

2) 색채

김재은과 여광응의 연구에서 정신지체아의 색채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전체적으로 파랑과 초록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그 다음 노랑, 보라색과 다른 색의 조합이 가장 두드러지고 다음으로 빨강과 초록의 대조가 두드러진다. 이와같은 주조색으로 정신지체아들은 자신감, 자제력, 조심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기력하며, 슬픔에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학년에서는 공격성과 적개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고학년에서는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의존적이고 순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으로 노랑과 보라를 거의 같은 정도로 많이 쓰는데 이것으로 정신지체아의 유아적 경향, 대인관계의 부적응, 애정의 요구, 도피증, 적개심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색과의 조합에서는 보라-다른색, 빨강-초록, 고동-다른색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색채만으로 정신지체아를 둘러싼 부·모간의 갈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이 지적으로 지체되어 있음으로 해서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5)

33) 윤정방(1994), 전개서, p.95.

34) 김삼성(1993), "정신지체아의 공간개념에 대한 발달특징",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p.47.

35) 김재은(1995),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교육과학사, p.321.

윤정방의 색채선호도 연구에서 일반아동은 원색 계통의 유채색을 선호하는 경향이나 정신지체아는 간색과 채간색, 무채색을 선호하며 색구별이 분명치 못하여 감정적으로 색을 사용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3) 화선

김재은과 여광웅의 연구에서 원과 점, 난잡한 선, 강한 선 등 화선의 특징이다. 화선으로는 고학년에서 강한 선이 많은데 이것은 내적 에너지가 강한 것을 말하며 다음으로 난잡한 선이 많다. 이것은 비합리적이거나 우유부단하고 꿈한 태도를 의미한다. 때로는 억압되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원과 점으로 나타났는데 원과 점은 소유욕이 강하고 애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저학년에서는 원과 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난잡한 선이 많고 강한 선은 그 다음이다. 이것으로 전체를 종합하면 우유부단하고 억압되어진 심리를 읽을 수 있으며 소유욕과 내적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겠다.

4) 그림의 내용

김재은과 여광웅의 연구에서 그림의 내용은 집, 사람, 나무 순이다. 자연풍경을 그리는 아이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집, 사람 순이다. 다음으로 교통수단, 동물이 나타났는데 이런 점에서 분석해보면 정신지체아들은 타인에 대해 거절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주목할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산(어머니), 태양(아버지), 자동차(어머니), 배(어머니) 등을 많이 그리고 있다는 점과 그들 중에 조형감이 없이 무질서한 선화로만 극적거린 그림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 지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윤정방의 자유화 소재선호도연구에서 일반아동은 자연과 정적인 소재에 관심이 많았으나 정신지체아는 동적인 것과 매우 자극적인 경험을 그림소재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36) 김재은(1995), 전개서 p.320~32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대상아동

본 연구의 대상아동은 모 복지회관에 의뢰하여 치료중인 7세된 정신지체아 J양을 개별화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고 본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여 미술치료를 진행하였다.

- 성 명 : ○ ○ ○
- 성 별 : 여
- 생년월일: 1991년 ○월
- 연 령 : 7세 9개월
- 진단명 :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 가족관계 : 부, 모, 언니, 오빠
- 신체조건 : 키 - 120Cm, 몸무게 - 17Kg

2) 대상아동의 특성

첫 면접시 J양은 감정표현이 거의 없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눈의 접촉(eye-contact)을 피하였다. 1997년 5월 28일 J양의 평가서 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인 발달지체이며 포테이지 체크결과 신변처리는 3~4세, 운동성은 5세 이하, 사회성은 4~5세, 인지는 4.0이하이며 사회성숙도검사에서 사회연령은 3.06세이며 사회지수는 49가 나왔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의존적인 태도가 보인다고 하였다. 언어는 단 단어 수준이고 대소변을 가리며 수개념은 3정도 가능하였고 색은 2~3개 정도 알고 있다. 행동이 느리고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온순한 태도를 보였다. 연구자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머니에 의하면 평소에는 큰소리로 얘기를 잘한다고 하였지만 첫 수업이라 그런지 많이 주눅이 들어보였다. 특이한 현상으로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입을 조금 비틀며 말하고 양손이 떨렸으며 걸음걸이도 약간 어색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와 시지각발달검사를 사전에 실시한 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소근육 운동향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추후검사를 적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Keith E.Beery가 개발하고 박화문·구본권이 번안한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와 Marianne Frostig가 개발하고 여광웅이 번안한 시지각발달검사(DTVP)를 실시하였다.

1)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 Developmental Test of Visual-Motor Integration)

표 2. 시각-운동통합검사의 내용

문항수	주요 내용
24	수직선, 수평선, 원, 십자형, 우 사선, 정방형, 좌 사선, 경사십자, 삼각형 열린정방형과 원, 세 직선의 교차, 화살표, 2차원의 고리, 6개의 원에 의한 삼각형, 원과 경사 정방형, 직마름모 꼴, 경사진 삼각형 붙여그리기, 8개의 점에 의한 원, 베르하이머의 6각형, 수평의 마름모꼴, 3차원의 짜임새 겹쳐 그리기, 입방체, 앞이 좁은 상자, 입체적인 별그리기

2)시지각발달검사(DTVP :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표 3. 시지각 발달검사의 내용

하위척도	문항수	주요내용
시각-운동협응	16	직선, 곡선, 모난선긋기, 점과 점잇기
도형-소지지각	8	여러 가지 도형, 형태가 겹친 그림에서 숨겨진 도형, 형태찾기
형의 항상성지각	17	크기, 모양, 위치가 다른 여러도형들 중 특정 기하도형 찾기
공간위치지각	8	반전된 도형과 회전된 도형 변별하기
공간관계지각	8	제시해 놓은 형태를 보고 같게 점과 점을 연결하기

4. 중재프로그램

미술치료프로그램은 소근육 운동능력과 눈과손의 협응력향상을 기초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미술치료 프로그램

단 계	회기	주 제	목 표	재 료
초기	1	테두리법	흥미유발, 관계친숙	8절지, 크레파스
	2	지점으로 만들기	긴장감완화, 소근육운동	지점토
	3	색종이찢어붙이기	눈과 손의 협응력, 소근육운동	색종이, 풀
	4	색종이접기	눈과 손의 협응력, 소근육운동, 모방력	"
	5	물감볼기	자유연상	8절지, 물감
	6	선긋기	직선, 곡선지각	"
	7	도형그리기	세모, 네모, 동그라미지각 눈과 손의 협응력	8절지, 크레파스
	8	도형자르기	세모, 네모, 동그라미지각 가위사용 지각	시트지, 가위
	9	도형만들기	세모, 네모, 동그라미지각 눈과 손의 협응력	지점토
	10	집, 나무꾸미기	눈과 손의 협응력	색종이, 풀
중기	11	면봉으로 그리기	눈과 손의 협응력	면봉, 물감
	12	스크래치	눈과 손의 협응력 소근육운동	8절지, 크레파스
	13	꼴라쥬	심상표현	잡지
	14	데칼코마니	자유연상	물감
	15	장갑만들기	눈과 손의 협응력	색지, 실
	16	자유화	심상표현	물감, 크레파스
	17	색테이프끼우기	눈과 손의 협응력 소근육운동	색테이프
	18	모방화-가족	눈과 손의 협응력 사람지각	자료그림, 물감
	19	모방화-기린, 돌고래쇼	눈과 손의 협응력 기린지각, 돌고래지각	"
	20	모방화 -꽃	눈과 손의 협응력	"
	21	모방화 - 닭	눈과 손의 협응력	"
	22	스폰지로 무늬꾸미기	눈과 손의 협응력	스폰지, 물감
	23	찰흙으로 만들기	소근육운동, 장감완화 눈과 손의 협응력	찰흙
	24	가방만들기	눈과 손의 협응력 성취감 및 자신감증진	색지, 풀
	25	모방화- 오리	눈과 손의 협응력	자료그림, 물감

단 계	회기	주 제	목 표	재 료
중 기	26	종이접꾸미기	눈과 손의 협응력 성취감 및 자신감증진	종이접, 색종이
	27	지점토부조만들기	소근육운동, 긴장감완화 눈과 손의 협응력	지점토
	28	물감으로 색칠하기	소근육운동 눈과 손의 협응력	8절지, 물감
	29	먹물로그리기	소근육운동	먹물, 물감
	30	찰흙으로 만들기	소근육운동 눈과 손의 협응력	찰흙
	31	모방화 - 풍경	계절감각지각	자료그림, 물감
	32	모방화 - 인어공주	바다풍경지각	"
	33	과일그리기, 엄마아빠표정그리기	여러과일 지각 감정이입	크레파스, 물감
	34	색종이접기	눈과 손의 협응력	색종이
	35	편치로 뚫기	눈과 손의 협응력	색종이, 편치
	36	자기신체그리기	신체지각 자기애착	전지, 물감
	37	가면만들기	성취감 및 자신감증진	색지, 색종이
	38	집, 나무, 사람그리기	집, 나무, 사람지각	A4용지, 4B연필
	39	입체-집만들기	눈과 손의 협응력 주의집중력, 집 인지	종이상자, 색종이
40	찰흙으로 신체만들기	신체지각 눈과 손의 협응력	찰흙	
41	나뭇잎 찍기	눈과 손의 협응력	사포, 나뭇잎, 물감	
종 결	42	손그리기	눈과 손의 협응력	싸인펜, 크레파스
	43	집, 나무, 사람그리기	집, 나무, 사람지각	A4용지, 4B연필
	44	초그림, 훑농떨어뜨리기	자유연상	색양초, 물감
	45	선생님그리기	선생님 지각	크레파스, 물감
	46	목걸이 만들기	소근육운동, 집중력 눈과 손의 협응력	스트로프, 실, 바늘
	47	골판지 물감으로찍기	눈과 손의 협응력 주의집중력	골판지, 물감
	48	지점토로 만들기	눈과 손의 협응력	지점토
	49	밀가루점토로 만들기	소근육운동	밀가루반죽, 물감
	50	자유화(free drawing)	자유연상	2절지, 물감, 싸인펜

5. 연구절차

연구대상 아동을 선정한 후 사전검사로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와 시지각발달검사(DTVP)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아동의 능력에 맞게 적용하여 1997년 9월 9일부터 1998년 5월 28일까지 일주일에 2회기(1회기, 30분)씩 총 50회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1997년 9월4일, 사후검사는 1998년 5월 25일, 추후검사는 1998년 11월 2일에 실시하였다. 중재프로그램실시는 연구자가 복지회관 치료실에 가서 직접 실시하였고 초기회기에는 심리치료사의 협조를 받았다.

6. 자료처리

본 연구의 소근육운동향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은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 Developmental Test of Visual-Motor Integration)와 시지각발달검사(DTVP :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하여 원점수의 향상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미술활동 프로그램 종결 후 5개월간의 휴지기를 거쳐 추후검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매 프로그램마다 아동의 관찰된 행동의 변화를 서술하여 소근육 운동향상에 미친 효과를 설명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회기별 프로그램과정

1). 초기단계(1~10회)

<1회> 테두리법 - 자유롭게 그리기

치료자가 개입해서 그런지 어색한 표정이었다. 아동에게 8절 스케치북을 제시하여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하였다. 가만히 앉아 스케치북만 쳐다보고 있어 테두리를 그려주었는데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가족을 그려보라고 제시하자 눈, 코, 입, 귀를 그려가기 시작하였다. 크레파스 잡는 필압이 강하고 거친 스트로크로 엉성하게 칠해나갔다. 연구자가 “이건 누구야”했더니 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답했다. 바탕채색은 하지 않았고 세 명의 가족얼굴만 그렸다. (그림 1) 다 끝내고 빠! 하면서 서로 손뽕치고 인사하자 금새 밝게 웃었고 헤어 질 때는 아쉬운 듯 손을 흔들었다. 연구자와 아동과의 관계형성이 아직 안되어서 언어표현이 서툴고 소극적이며 조용하고 어색함과 경직된 표정을 갖고있었다. 손을 잡아보니 가볍게 떨었고 눈의 접촉을 피하였고 행동이 느리며 자발적인 의사표현보다는 지시에 따르려는 의존적 경향이 강해 보였다.

<2회>지점도로 만들기

점토작업에 들어가지 전에 소근육 운동으로 간단한 손유희를 해보았는데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데 단순한 모방은 하지만 반대로 할 경우나 조금 복잡한 동작을 할 때에는 혼동하고 제대로 모방이 안되어 금새 싫증을 내버렸다.

“무얼 만들까?” 라는 질문에 선뜻 “배”라고 답했다. 우선 점토와 친숙해지기 위해 손에 잡고 주무르는 동작을 해보니 아동이 점토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소극적이고 손에 힘이 없어 보였다.

연구자가 먼저 만들면 아동이 수동적으로 따라 만들었다. 길다, 짧다를 인식시켜주었지만 활동에 대한 지각표현이 서툴었고 반복적으로 길게 미는 작업을 계속하여 타원형의 배 모양으로 말아 올리면서 이은 부분을 물로 문지르며 같이 해나갔다. 연구자가 “재미있어?” 하자 “네”라고 하였다. “남은 점토로 물고기도 만들어보자” 했더니 “네”하고 답하자 먼저 만들어 볼까 했더니 손으로 점토를 뚝 떼어내어 “고기”라고 하였다. 연구자가 먼저 둥글둥글 하게 만든 다음 아동 손을 잡고 4~5회 정도 가르쳐주었더니 혼자서도 둥글게 만들기는 했지만 둥근 모양이 제대로 안나왔다. 고기를 만들어 “ 배 안에다 넣어보자” 하며 연구자가 먼저 배 안에다 넣었더니 아동도 따라서 배 안에다 고기를 만들어 배 안에 가득 채웠다. (그림 2) 점토조작에서 초기에는 의미없이 만지고 주무르고 반죽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작업과정에서 산만하지 않고 집중하는 태도를 가졌고 점차적으로 익숙한 손동작을 취하였다.

<3회에서 4회>색종이 찢어 붙이기, 색종이 접기

소근육 운동과 눈과 손의 협응력을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자가 먼저 신문지를 찢어 보이자 과감히 색종이, 신문지를 스스로 찢고 즐거워했다. 화장지를 꾸기며 “아 부드럽다.” 인지시켜주고 작업 중간에 “지금 무얼 하고있지?” 하고 현실과약을 위해 질문하자 대답하지 못하였다. 연구자가 “신문지 찢어요”, “신문지 붙이고 있어요” 하고 따라 하게 하였고 “누가 만들었어?” 라고 질문하자 “○○가” 답하고 “나”를 인식시키기 위해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내가 만들었어” 라고 따라하게 하였다.(그림 3) 처음 풀칠할 때 깔끔한 성격 탓으로 손에 묻는걸 자꾸 닦으려고 하자 “괜찮아, 다 끝내고 같이 깨끗이 손씻자” 하고 말해주고 계속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

4회에서는 어떤 색종이를 고를까 했더니 주황색을 선택하였다. “접고 싶은 거 있니?” 하고 물었더니 “못해” 라고 답했다. 여러 동물들 중 토끼를 접고 싶다고하여 연구자가 먼저 접고 “따라해 보세요” 했더니 모방이 거의 안되었다. 연구자가 아동 손을 잡고 같이 접고 눈, 코, 입은 스스로 그리게 하였는데 시야가 넓지 않고 팔 활동폭이 크지 않아 한쪽으로 치우쳐 그렸다. “무얼 만들었지?”라는 말에 “토끼”라고 답하지만 “무슨 색이야?, 누가 만들었어?”라는 질문에 계속 “토끼” 라고 하였다. 주의집중을 시키기 위해 이름을 부르고 나서 “무슨 색이야?” 했더니 “주색”이라고 하였고 초록색 색종이로 접은 강아지는 무슨색인지 대답하지 못했다. “누가 만들었어?”라는 질문에는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단서를 제공해주니까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하였다. 몸통과 다리를 스스로 그리게 하였는데 미분화된 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었고 물감사용시 집착을 보였고 거친 붓터치로 두껍게 겹쳐 부분적으로 칠하였다.(그림 4)



<5회> 물감볼기

물감을 꺼내 “무슨 색이 좋아”하니 초록색을 선택하였다. “무슨 색이지”라는 질문에 “초색”이라고 하였다. 붓으로 물조절을 하고 나서 화지에 물감을 떨어뜨려 빨대로 부는 예를 보여주니까 스스로 불기는 했지만 입김이 약하고 소리만 “후-”하고 물감이 잘 퍼지지 않았다. 다른 색을 선택하게 하니 주황, 노랑, 빨강색을 각각 골라 혼자서 물감뚜껑을 열고, 짜고, 물 섞어서 손으로 직접 짜서 빨대로 불었다. 부는 힘이 약해 같이 불었는데 싫증이 났는지 빨대를 이빨로 질경질경 씹어서 눌러 버렸다. 종이를 찢어 화지에 놓고 입으로 불게 하자 입김이 약하여 화지 밖으로 나가지 않자 답답한지 직접 손으로 갖다 놓아버렸다.(그림 5) “누가 했어”라는 질문에 “나 ○○가”라고 대답하기에 “내가 했어요”라고 수정해 주었다. 늘 무표정과 어색한 아동의 얼굴표정이 예전보다 조금 완화되어 밝아지고 목소리 톤도 커졌다.

<6회에서 7회> 선긋기, 도형그리기

6회에서는 자유롭게 선긋기로 연필로 직선-가로, 세로선을 그려주고 크레파스로 따라 그리게 하였다. 성격이 급한지 빠른 속도로 밑선에 빗나가게 꼬불꼬불한 선을 그려나가자 “부웅-----”하고 청각적 자극을 제시하여 천천히 그려나가게 하였다. 시작점과 끝점을 제시하여 연결시키는 연습을 충분히 한 뒤 물감을 이용하여 붓으로 그리게 하였다. 여전히 크레파스 사용할 때 필압이 강하고 붓 사용시에도 강하게 쥐어 붓털이 온전치 못하다. 직선을 인지시키기 위해 아동이 물감사용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을 선택하게 하고 물감사용법을 익혀 가로, 세로선을 반복적으로 그리게 하였고 사선, 곡선도 재미있게 따라 그렸다.(그림 6)

7회에서는 도형 그리기에 들어가기 전에 직선, 사선, 곡선을 따라 그려보았더니 미숙한 점은 있으나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지난번보다 훨씬 익숙한 솜씨로 그려나갔다.(그림 7)



<8회에서 10회> 도형 자르기, 도형 만들기, 집·나무꾸미기

8회에서는 가위사용법을 지각하고 있어 직선, 각이 진 선을 그려주고 “정확하게 따라 자르세요”했더니 재미있게 열심히 자르지만 선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며 엉성하게 잘랐다. 같이 손을 잡고 “싹둑 싹둑”하며 천천히 자르게 유도하였지만 여전히 종이를 대기만 하면 성급하게 잘라나갔다. 세모와 네모를 가끔 혼동하고있지만 변별이 가능하며 스스로 도형을 그려보라고 하였더니 네모는 비슷하게 그렸고 세모는 3개의 선으로 그리지만 점들이 연결되지 않은 세모로, 원은 점에서 시작하여 검게 칠해버렸다. 자르기에서 세모, 네모는 그나마 가능하였지만 동그라미 형태는 전혀 안되었다. 자른 것을 풀로 화지에 직접 붙이고 크레파스로 도형형태를 따라 그렸다.(그림 8)

9회에서는 색고무찰흙으로 도형만들기 해보자고 하니 색고무찰흙을 주무르는데 소극적이어서 기본동작을 언어로 표현해주면서 같이 주물렀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치료자가 먼저 만들어 보여주고 모방하게 하였지만 인지하고 있는 도형을 색고무찰흙으로 표현해 내지 못했다.(그림9). 같이 손을 잡고 도형을 만든 다음 “네모주세요 . 세모주세요, 동그라미 주세요”라고 질문하였더니 네모와 세모를 가끔 혼동하였다.

10회에서는 색종이로 집·나무꾸미기를 해보았는데 세모, 네모를 이용하여 집을 만들고 동그라미를 이용하여 나무를 만들었다. 아동스스로 “씩뚝씩뚝”하며 조심히 자르려고 노력하였고 “이게 뭐지”라는 질문에 “집, 우리집”이라고 하였고 나무도 지각하였다. (그림 10) 바탕에는 물감을 이용하여 채색하게 하였는데 물감짜고 물섞고 붓으로 색칠하는데 흥미를 갖고 열심히 마무리하였다. 얼굴표정이 완화되고 주의력이 높아지고 세심한 작업과정을 볼 수 있었다.

2). 중기단계(11~41회)



<11회에서 12회>면봉으로 그리기, 스크래치

11회에는 면봉으로 그리기를 하였는데 감기몸살로 2주동안 쉬었다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로 수업에 임했다. 몸이 다 안 나아서 목소리도 작았고 얼굴표정도 밝지 않았다. “사과를 그려볼까”라는 말에 작게 굴처럼 그려서 다시 그 옆에 “크게 그려볼까”했더니 크게 그려 넣었다. 면봉을 이용하여 물감으로 찍는 작업을 하였는데 천천히 2번 찍고 멈추고 하며 반복하였다. 굴과 사과를 변별할 줄 알고 초록, 빨간색도 구별하여 대답하였다.(그림 11)

12회에는 스크래치를 하였는데 작업에 대한 의욕과 흥미유발을 시키기 위해 각 칸별 여러 가지 크레파스로 누가먼저 빨리 채색하는가 내기하면서 칠해 나가자 아동의 손에 힘이 들어가고 대충대충 칠하고 나서 “○○ 1등!”하며 좋아했다. 검정색으로 전부 칠하는 것 역시 즐거워했고 이쑤시게로 마음껏 그려보라고 했더니 동그란 얼굴에 선4개(두족형의 사람)를 그려서 “엄마”라고 하

였다. 그 외 아기 2명을 더 그리고 햇님도 그렸다.(그림 12)

<13회에서 14회> 플라쥬, 데칼코마니

13회에서는 아동이 빨간색옷을 입고 와 “아! 예쁜 빨간색옷 입었네” 했더니 “아니 초록색 입었어”라고 대답하자 빨간색이라고 수정해 주었다.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잡지들을 보여주고 마음에 든 것을 골라 잘라보라고 하자 먼저 아기 사진을 골라 “아기”하며 얼굴만 빠른 속도로 오려나갔다. 다음은 강아지를 오리고 나서 남자아이를 골라 “오빠 우리 오빠”하며 대충 빠른속도로 오렸다. 아기 얼굴밑에 신체를 그려보라고 하자 여전히 두족형의 인물로 몸통을 생략한 선4개를 그려넣었다.(그림 13) 아동자신도 강아지 옆에 보라색 크레파스로 그렸는데 신체생략이 없이 사람형태에 근접하게 그려넣고 채색도 꼼꼼하게 칠해나갔다. 빨간색 신발을 칠하면서 “무슨 색이야?” 라는 질문에 “노란색이야” 라고 하였고 바탕 채색시에도 빨간색 물감을 고르면서도 “노란색으로 할꺼야” 하는 등 색이름을 혼동하였다. 물감 사용시 상당히 흥미를 갖고 섬세하게 칠해나갔고 크레파스 위에 덧칠한다든지 부분적으로만 계속 칠한다든지 거칠게 사용하여 사용법을 가르쳐줄려고 중단하게 하면 고집을 부리며 붓을 놓지 않는다. 작업과정에서 눈의 초점이 분명해졌고 그림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14회에서는 기분이 좋은지 얼굴표정이 밝고 목소리도 크고 예전에 비해 발음도 정확해졌다. 좋아하는 색 물감을 골라 종이에 짜보라고 하니 기분좋은 상태와는 상관없이 검정, 남색, 갈색계열을 골라 짜서 문질렀다.(그림 14)

물감 양이 조금밖에 없어 잘 안 나오자 “선생님 이거” 라고 하자 “뭐야?” 했더니 아무말이 없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짜주세요”를 따라 하게 하였더니 “선생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뒤에 말만 따라했다.

<15회에서 17회> 장갑만들기, 자유화, 색테이프끼우기,

15회에서는 병어리 장갑을 화지에 아동의 손을 대고 따라 그리게 하고 한 쪽 손은 아동이 직접 그리게 하였다. 크레파스로 예쁜 꽃무늬도 넣어 색칠하는데 “예쁘다”하며 애착을 갖고 꼼꼼히 채색하였다.(그림 15) 장갑둘레에 편치로 돌아가면서 아동이 직접 뚫고 신기한지 여기저기 마구 뚫었다. 큰 바늘로 굵은 실을 꿰어주고서 바느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끼우기는 잘 하지만 빨 때는 실이 바늘에서 빠져버리게 힘껏 잡아당겨 버려서 계속적으로 연결하여 바느질이 안되고 자꾸 중단이 되었다.

16회에서는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라고 하면 아동은 인물을 즐겨 그린다. “엄마 좋아. 언니 좋아” 하며 두족형의 인물을 그리고 즐겨쓰는 색채를 보면 노랑과 빨간색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림 16)

17회에서는 색테이프 끼우기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같이 손을 잡고 차근차근 엮어나갔고 스스로 해보라고 하나 한 칸 한 칸씩 끼우고 빼고 하는 것에 싫증을 내며 2칸 3칸씩 건너뛰었다. 끝까지 다 끼우고 나서 멈추지 않고 계속 테이프를 빼버렸다. 도와주려고 하면 “싫어, 내가” 하며 빠른 동작으로 뺏어서 혼자하려고 고집을 피웠다.(그림 17) 금지, 은지색종이를 찢어 색지에 붙여 카드만들기를 하였는데 금새 흥미를 느껴 적극적으로 붙여나갔다. 쓰기학습을 겸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같이 손을 잡고 쓰고나서 “엄마에게 드릴까?” 했더니 “안돼! 엄마에게 안 줄꺼야. ○○꺼야!” 했다.

<18회에서 19회> 모방화 - 가족, 기린, 돌고래쇼

18회에서는 모방능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자료들 중 가족그림을 골라 화면 구도를 생각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게 그렸고 얼굴에만 집중적으로 그려나갔다. 몸통, 다리 표현이 미숙하고 많이 그려보지 않은 꽃과 새는 “못해”하여 같이 그려 나갔다. (그림 18) 복지회관이 겨울방학이라 2주정도 쉬었다가 와서 그런지 무기력해보이고 의욕이 없어보이며 표현에 있어 소극적이였다.

19회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 자료들 중 노란 기린이 예쁜지 “기린 그럴래요”하며 기린을 골랐다. 얼굴과 몸통을 보고 제법 따라 그렸고 다리는 4개 선으로만 나타냈다. (그림19)

<20회에서 21회> 모방화 - 꽃, 닭

20회에서는 꽃이 나와있는 자료를 잘 관찰하여 큰꽃, 작은꽃에 의인화 표현으로 눈, 코, 입을 그려넣었다. (그림 20) 지난 프로그램때 손가락으로 그린 게 생각이 났는지 붓으로 칠하다가 중단하고 손가락으로 칠해나갔다. 색종이를 길게 오리고 둥근 고리모양을 만들어 이어서 목걸이, 팔찌를 만들었는데 자꾸 뒤틀리게 붙여 모양이 이상한지 “어떻게?”하고 짜증을 내며 물었다. 빨간 형광색지와 노란 형광색지를 골라 같이 만들고 다 완성하고 나서 “아! 예쁘다”하며 좋아하였다.

21회에는 고무찰흙을 주무르고 나서 둥근 공모양을 만들어 “분홍색 공 주세요”, “보라색 공 주세요”하며 공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색변별과 눈과 손의 협응력이 많이 나아졌다. 중앙에 크게 그려져 있는 닭 자료그림을 보고 왼쪽 하단에 작게 그렸다. 크레파스 필압이 너무 강해 크레파스가 부러졌고 붓사용시는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칠하였다. 바탕은 파란색을 골라 칠하였다.(그림 21)

<22회에서 23회> 스폰지로 무늬찍기, 찰흙으로 만들기

22회에서는 시트지로 도형을 잘라 붙이게 하였는데 가위사용이 여전히 성급하게 들쭉날쭉 잘랐고 도형인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손에 잡을 수 있는 작은 네모모양의 스폰지에 물감을 찍고 자유스럽고 재미있게 찍어나갔고 여러 가지 색을 골라 반복적으로 무늬를 꾸몄다. (그림 22)

23회에는 여러 가지 동물모형들 중 뱀을 유난히도 잘 갖고 놀며 연구자가 “아유 징그러워”하면 장난으로 연구자 앞으로 휘하고 던졌다. 찰흙점토를 갖

고 길게 밀어서 뱀을 만들어 즐거워하다가 무서워했다. 만들고 싶은 동물모형을 골라 오라고 하나 개구리와 악어, 오징어를 골라왔다. 치료자가 먼저 만들어 아동이 모방하며 만들어 나갔다. 길게 밀어 다리4개를 만들어 개구리 몸통에 붙였고 “악어 입이 참 크다. 이빨이 무섭네 ”라고 했더니 “싫어! 악어 무서워”라고 하였다.(그림 23) 꼬리, 다리도 주물럭거리면서 섬세하지는 못하였지만 점토 다루는 솜씨가 능숙해졌다.

<24회에서 25회> 가방만들기, 모방화-오리

24회에서는 같은 모양과 색의 스티커를 연결시켜보았는데 제대로 연결하지만 색이름을 물어보면 아직도 혼동하였고 추워서 그런지 유난히 말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입이 경직되어 보였다. 엄마말에 의하면 같이 놀아주지 않고 소외감을 느낄 때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색지선택에서 파란색을 선택하였는데 요즘 빨강, 노랑에 이어 파란색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네모난 가방둘레에 편치로 돌아가면서 어렵게 뚫었고 바느질은 천천히 끼우고 잡고 다시 끼우는데 오래 걸려 실이 자꾸 빠졌다. 노란색지로 손잡이를 붙이고 시트지로 세모모양을 오려서 꾸몄다. (그림 24)

25회에서는 초기단계에 입체퍼즐 맞추기에 별 흥미를 안 가져 중단했었는데 책상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아동이 하고싶다면서 그동안 해 보왔던 기초단계 맞추기 세가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수월하게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스스로 끝까지 완성한다기 보다는 지적을 해주어야만이 가능하였다. 첫째줄 맞추기가 끝나면 다음 밑에 줄로 가지않고 첫째줄에 계속 이어서 하였다. 오리가 그려진 자료를 골라서 큰 동그라미를 그려 몸통을 그리는 줄 알았는데 눈, 코, 입을 그렸다. 다른 오리는 같이 손잡고 그렸고 물감채색시는 파란색을 골라 혼자서 마무리를 잘하였다. (그림 25) 모방화를 하면서 색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다양한 색의 물감을 혼합하는데 흥미를 가졌다.

<26회에서 27회> 종이컵꾸미기, 지점토부조만들기 - 가족

26회에서는 색종이를 작게 찢어 컵에 붙이기를 했는데 아동이 크게는 잘 찢지만 작게 찢는게 제대로 안되어 결국 입으로 찢다가 꾸겨버렸다. 주의를 주고 같이 천천히 찢고나서 풀칠하고 꼭꼭 눌러줄 때는 “꼭꼭”하며 청각적 단서를 줌으로서 시각-청각의 보완적 결합으로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 (그림 26)

지점토 주무르기를 하고 나서 동글게 만들어 다시 손바닥으로 눌러 얼굴형태를 만들었다. 스스로 눈, 코, 입을 만들어 엄마, 아빠, 언니를 만들었다. “언니 좋아”하며 만든 두상작품에다 입맞춤도 하였다. 만든 작품과 똑같이 그리기도 하였는데 아빠와 엄마얼굴은 크게 그려 몸통이 생략되었고 머리와 얼굴 채색시에 검정과 살색을 골라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똑같애”하며 색 의미부여가 가능해졌다. (그림 27) 빨간색물감을 골라 적당히 짜지 않고 듬뿍짜서 중단시켰더니 화가 나서 “안해!” 하며 색칠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같이 손잡고 색칠하고 나서 “선생님 좋아 많이 ”하며 입맞춤도 해주었는데 처음으로 연구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였다.

<28회에서 30회> 물감으로 색칠하기, 물로 그리기, 찰흙으로 만들기

28회에서는 크레파스로 방사선모양에 여러 칸을 그려주고 각각 다른색의 물감으로 칠하게 하였더니 평소 즐겨쓰는 빨강, 노랑, 파랑계열은 사용하지 않고 연두, 초록, 남색, 회색 등 원색은 기피하고 2~3가지 색을 혼합하여 칠하였다. 탁하게 된 색을보며 “예쁜색이니?”하고 물어보니 “예뻐!” 하고 말했다. (그림 28) 색종이를 따라 접게하여 가위로 오려 예쁜 무늬가 나오게 하였는데 성격이 급하여 접는게 비틀어지고 가위로 색종이를 마구잡이로 잘라 이상한 무늬가 나오자 “재미있어”하며 점점 작게 잘라나갔다.

29회에서는 두족형의 인물 그린위에 먹물을 묻힌 붓으로 따라 그렸는데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아주 굵은 선이 나와 같이 손을잡고 그렸다. 물감채색시

흰색과 원색을 혼합하는데 흥미를 갖고 칠하였다. (그림 29)

30회에서는 스스로 찰흙을 주무르고 두드리고 둥글게 돌리는 동작을 능숙하게 하였다. 먼저 나무만들기에서는 긴 막대모양에 둥근모양을 붙여서 “나무”라고 하였고 집은 세모, 네모를 인지하고 있지만 “못해”하여 같이 만들었다. 그리기에서는 두족형의 인물만 나오는 반면 찰흙으로 만들 때는 모방을 해서 그런지 몸통과 팔, 다리가 생략없이 다 나왔다. 그동안 수동적인 모방만하다가 엄마를 만들 때는 “찌찌 있어”하며 동그란모양을 2개 가슴에 붙였고 아기 만들 때는 “우웃병도 만들어야지”하며 붙였다. 아직 크기와 형태에 대한 지각이 없었고 손으로 푹푹 눌러버렸다. 점토를 만지고 반죽하는데 있어서 손가락을 힘차게 움직이고 능숙하게 다루었다. (그림 30) 아기가 가끔 등장하는데 내담자가 유아적인 경향에 머물고 싶어하는 면을 볼 수 있었다.

<31회에서 32회>모방화 채색, 인어공주

31회에서는 집, 나무, 꽃, 해가 있는 풍경을 잘 보고 따라 그렸고 크레파스 채색에는 흥미를 잃어보였고 물감혼색에만 열중하였다.(그림 31) 준비물 챙길 때는 자발적으로 먼저 가서 찾고 물도 스스로 떠왔다.

32회에서는 비오는 풍경을 시원한 사선과 직선으로 그렸고 큰 인어공주의 얼굴에 표정이 생략되었다. 물고기그림에서는 의인화 표현으로 눈, 코, 입을 그리고 바탕에는 파란색에 흰색을 혼합하여 채색하였다.(그림32)

<33회> 과일그리기, 엄마, 아빠 얼굴표정그리기

접시만 그려주고 그 안에 먹고싶은 과일들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사과, 바나나, 포도, 딸기, 귤 등 인지하고 있는 과일들을 모두 그렸고 색칠도 과일색과 적절한 색을 골라 “똑같애”하며 칠하였다. 바탕채색시 파랑과 흰색을 혼합하여 칠하였고 치료자가 “포도밑에 칠하세요 접시 위에도 칠하세요”했더니 잘 찾아서 칠하는 것을 보고 위치파악에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33)

엄마, 아빠 표정 그리기에서는 검고 작은 눈, 긴 코, 이빨이 드러나 벌린 입을 그려 빨간색으로 칠하고 화나는 표정을 그렸다. 아동이 직접 손으로 자기 입에 갖고가 잡아당기며 “도깨비 같애”하며 웃었다. (그림 34)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하며 성구별도 가능하였다.

<34회에서 35회> 색종이 접기, 펀치로 뚫기

34회에서는 “선생님 오늘 뭐 할꺼야?”하며 관심을 보이며 준비물 가방을 뒤졌다. 색종이로 집과 별을 따라 접으면서 “똑같애”라고 하였다. 조금 비틀어지게 접기는 하였지만 순서대로 잘 따라접었다. 치료자가 “○○ 최고네 잘했어”라고 해주었더니 아동이 “선생님도 최고야”라고 하였다. 집밖에서 놀고있는 사람들도 그려주자고 하였더니 “언니, 엄마”하며 그렸지만 신체, 팔다리가 생략되고 얼굴만 크게 그렸다. (그림 35) 물감사용시 스스로 가서 준비물을 챙겼고 바탕채색시 “여기도 해야 돼”하며 꼼꼼히 완성하였다.

35회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따라 그리기는 예전보다 많이 익숙한 형태를 그렸다. 세모가 아직도 서툴러 같이 손을 잡고 그렸고 긴 네모, 마름모 등 복잡한 도형도 비슷하게 모방하였다. 색셀로판지(빨, 노, 파) 색깔이름 알아맞추기는 잘 하지만 혼합색(빨+파), (파+노), (빨+노)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도형을 색종이에 그려 잘라 펀치로 둘레를 뚫고나서 집, 나무형태를 만들어 붙였다. 원자르기가 서툴고 펀치사용도 천천히 힘들게 사용하였다. (그림 36) 이름을 써보라고 하였더니 성만 반복해서 쓰자 같이 손을 잡고 이름을 썼다. 요즘들어 궁금한게 많은지 자꾸 “이게 뭐야”하며 질문이 늘었다.

<36회에서 37회> 자기신체 그리기, 가면만들기

36회에서는 전지 한 장 반을 연결하여 벽에 붙여서 아동의 신체를 따라 그려주고나서 스스로 눈, 코, 입을 그려보게 하였다.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이 색을 골라 큰 붓으로 색칠하며 “귀도 똑같애”하며 아동의 귀를 가리키며 말하였

고 “단추도 똑같애”하며 자신의 옷에 있는 단추를 가르켰다. 그리고 “모두 똑같애”라고 하여 “모두”라는 개념을 알고있었다. 처음으로 큰화지에 큰 붓을 접하여 그런지 적극적이고 흥미있게 완성하였다. (그림 37)

37회에서는 3가지 색지 (주, 파, 남) 중 남색을 선택하여 동그라미에 눈, 코, 입을 스스로 그렸다. 그리고 나서 “누구야?”라는 질문에 “엄마”라고 하였다. 분홍색과 빨간색 색종이를 작게 찢어 꼼꼼하게 꾸몄다. 머리는 길게 잘라 연필로 감아 동글하게 만들어 붙이자 재미있어 잘 따라하였다.(그림 38) 비눗방울 불기도 해보았는데 짧고 세게 불어서 비눗방울모양이 안나오자 싫증이 났는지 그만 두었다. 초기단계에 입체퍼즐 맞추기에 별 흥미를 안 가져서 중단했었는데 아동이 하고싶다면서 갖고 와서 기초적인 카드지만 아동 스스로 그림카드를 보고 선택해 빠른속도로 완성하였다.

<38회> 집, 나무, 사람그리기

A4크기의 종이에 4B연필로 집, 나무, 사람 그리기에서 화지 오른쪽에 연결되지 않은 원에 단일선으로 즐거움을 표현하여 나무를 먼저 그렸다. 지붕이 없는 직사각형의 집안에 두족형의 인물 다섯 명을 그리고 나서 2층에다 창문과 대문도 그렸다. “○○네 가족이 전부 몇 명이야”하고 물었더니 다섯 손가락을 펴 보이며 “다섯 명!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엄마, 아빠.....” 반복하며 얘기했다. 남자 그림은 화지 왼쪽에 작게 그리고 손이 생략되었고 여자그림은 화지 왼쪽에 남자상보다 크게 그렸고 몸통, 눈동자, 손이 생략되었다. 남, 여상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림 39) 난화그리기에서는 “나 축구 좋아”하며 공차는 흥내를 내고 나서 직사각형의 골대에 검은 공을 그렸다. 그리고 “나 남자 친구있어”하며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그렸다.

< 39회에서 40회> 입체 - 집만들기

39회에서는 빈 상자를 이용하여 “집 만들기를 해보자” 제시하고 즐거워하

면서 빈 상자에 풀칠을 급하게 칠해나갔다. 색종이 이름을 질문하자 모두 알아맞추었다. 네모모양을 오려 붙이고 문과 창문을 붙였다. 골판지 자르기는 두꺼워서 그런지 천천히 바르게 자르고 지붕을 붙이고 나서 “와 집이다.”하고 좋아하였다. (그림 40) “누구 집이야?” 했더니 “선생님 집”이라고 하였고 “누구하고 살아요?” 했더니 나와 엄마 그리고 언니 오빠라고 얘기하였고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다.

40회에서는 거울을 보고 “나”를 확인하고 1인칭 “나”, “너”를 인지시키기 위해 “이게 누구야?, 너 누구지?” 하고 질문하였더니 “나 ○○”하고 대답하였다. “나 누구야?”하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생님”하고 말했다. 평소 두족형의 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찰흙으로 사람신체를 만들고 나서 그리기를 해보았다. 능숙하게 점토반죽을 하여 얼굴, 몸통, 팔, 다리, 손, 발을 만들어 붙이며 “손 몇 개지?, 발 몇 개지? 눈, 코, 입은 몇 개지?” 질문하자 모두 맞게 답하였다. 완성된 작품을 화지 위에 올려놓고 따라 그리게 하고 나서 “똑같네”하고 “손 어디 있지? 다리 어디있지?”하며 신체부분의 위치를 질문하여 가리키게하였다. 그리고나서 다시 찰흙점으로 만든 신체를 보고 그려보고 다시 안보고 그렸더니 더 이상 두족형의 인물이 안 나오고 몸통과 손발이 생략없이 모두 나타내었다.(그림 41)

<41회> 사포에 그리기, 나뭇잎 찍기

사포에 아동손을 직접 대고 거칠거칠하다는 느낌을 느껴보게하고나서 크레파스로 자유화를 그려보게 하였다. 동그라미만 반복적으로 그렸다. 색칠은 옆에 있는 인형의집 색과 “똑같애”하며 칠하였다. 인형의 집 창문을 보면서 “똑같애”라고 하며 창문모양을 그렸다. 나뭇잎찍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뭇잎에 물감을 묻히고 화지에대고 손바닥으로 탁탁 눌러서 “똑같애”하며 찍어냈다. (그림 42)

3). 종결단계 (42~50회)

<42회에서 43회> 손그리기, 집·나무·사람그리기

42회에서는 아동의 손을 화지에 대고 따라 그리는데 혼자 힘으로 제대로 그리지 못하여 연구자가 그려주고 연구자의 손을 대고 아동이 따라 그리게 하였다. 손가락마다 웃는 얼굴표정을 그려보라고 제시하자 무표정이나 화난표정을 그렸고 손바닥색칠도 크레파스로 거칠고 빠르게 엉성하게 칠하였다. (그림 43)

43회에서는 인물그리기에서 중앙에 치우치게 배치하였고 남자상은 몸통보다 얼굴이 더 크며 머리카락이 위로 올라가게 그렸으며 예전과는 달리 몸통, 목, 팔, 다리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남, 여상의 성구분이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체에 가슴으로 표현하였다. 집 그리기에서는 오른쪽에 치우쳐 가늘고 긴 아파트를 그려 엄마집이라고 하며 창문에 엄마얼굴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선생님, 나, 언니, 오빠, 아빠 얼굴을 차례대로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살아”라고 말하였다. 나무그리기에서 예전에는 줄기를 단선으로만 그렸었는데 굵게 그리고 “사과”라고 하며 6개의 열매도 그렸다. (그림 44)

< 44회에서 45회> 초그림, 촛농떨어뜨리기, 선생님그리기

44회에서는 초에 불을 붙이자 생일축하 노래를 박수치며 부르고나서 후하고 불었다. 촛농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신기한지 재미있어 했지만 직접 초를 잡고 촛농을 떨어뜨리는 작업에는 거부감을 갖자 같이 손을 잡고 해 나갔다. 초그림 그리기에서는 화지에 그린 자국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의미없이 반복해서 등굴게 그려나갔다. 물감채색시 초그림이 나타나자 신기한지 계속 덧칠작업을 하였다. (그림 45)

45회에서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려보라고 했더니 선뜻 선생님을 그

린다고 하였다. 자신의 의지를 처음으로 나타내었고 계속 밝은 표정을 지었다. 연구자가 “예쁘게 그려주세요” 했더니 “예” 하며 연구자의 얼굴을 웃으면서 쳐다보며 눈, 코, 입을 그려나가기 시작하였다. “머리가 기니까 길게” 하며 위로 길게 솟은 머리를 그렸다. (그림 46)

< 46회에서 47회 > 목걸이 만들기, 골판지물감으로 찍기

스트로프와 색지를 이용하여 종이노끈으로 목걸이와 팔찌를 만들었는데 처음 스트로프구멍에 종이노끈을 끼우는데 힘들어하고 오래 걸렸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스트로프와 색지를 혼동하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끼워나갔다.(그림 47) “아 재미있다. 엄마꺼”하며 자발적인 언어구사력이 나왔고 삶은 콩에 바늘로 끼우는 작업에서는 바늘에 찔리고 나서 하기 싫다고 중단하였다.

47회에서는 골판지로 도형을 가위로 오려 붓으로 물감을 칠하여 찍기작업을 하였는데 붓에 물감조절이 능숙하게 잘 칠하여 적극적으로 찍어나갔다. 손가락에 물감이 묻자 화지에 툄툄 찍어나갔다. (그림 48) 자른 도형골판지에 물감묻힌 칫솔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잘 튕겨지지 않자 대담하게 손바닥 전체로 해나가는 것을 보고 강한 집중력으로 작업에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9)

< 48회에서 49회 > 지점토로 만들기, 밀가루 점토로 만들기

동물모형들중 만들고 싶은 것을 골라오라고 하였더니 오징어와 새를 골라왔다. 모방하여 만드는데 점토를 능숙하게 주물렀다. (그림 50)

49회에서는 밀가루반죽에 색염료를 넣어 반죽을 한 다음 무엇을 만들까 하자 “친구”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신체에 대한 연상이 가능하여 얼굴, 몸통, 팔, 다리를 만들어 나갔다. 남자친구도 만들어볼까 하고 제시하자 예하며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림 51)

< 50회> 자유화 (free drawing)

2절크기의 종이를 주고 “그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그려볼까”하고 제시하자 이전에는 “무얼 그릴까?”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운 표정을 지었는데 대담하게 큰 인물상을 그렸고 즐겨 그렸던 소재들- 집, 나무, 꽃, 해, 구름을 각각 그렸다. 나무그림에서는 사과열매도 그렸고 채색시에도 능숙하게 그렸다. (그림 52) 그동안 작업한 작품들을 스크랩하여 아동에게 보여주며 “이건 누가 그렸어?”하고 질문하자 “내가 했어, ○○가 다 했어.”하며 만족한 듯 밝게 웃었다.

2. 회기별 진행결과

대상아동의 그림특징은 전체적인 필압이 강하고 진한선으로 그리는데 이것은 에너지 수준이 높고 긴장이 심하며 충동적이였다. 끝나고 나서 “재미있어?” 하고 물어보면 “안 재미있어”하고 반대로 말하였고 자신의 감정이 좋고 싫음에 대한 감정표현을 제대로 못하던 아동이 “안해!, 싫어!”, “또 할래요” “이거 할꺼야”등의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정에서도 감정표현을 정확히 하며 미술작업도 보이는 종이와 벽면에다 물감으로 그리고 가위로 오리고 만드는 등 대담하게 표현하였다. 자유화에 있어서도 전보다 내용과 색상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졌다. 인물의 크기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몸통, 팔, 다리 등 신체가 구분이되고 연상이 안되어 표현하지 못하고 꼬적거리기만 하였는데 동물, 나무, 집, 꽃 등이 조금씩 등장하였다. 미술활동상의 집중시간과 흥미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자신의 활동결과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집·나무·사람그리기(HTP:Housr-Tree-Person)³⁷⁾그리기에서 김동연, 공마리아가 편역한 인물화 및 집·나무·사람그림에 의한 심리진단법을 참고로 해

37) HTP : 웨슬러검사의 보조검사로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출발, 나무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인 감정을 반영하며 인물화는 자기와 개인 내적인 비교를 개념짓는 현실-생활 감정을 표출, 집은 현재의 가정과 장래의 가정, 과거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석하였다. 38회기(그림 39)에는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게 표현되었고 이것은 자신의 환경에 부적응적, 무력감, 열등감, 불안감을 읽을 수 있다. 위치를 보면 왼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의존적이며 충동에 만족함을 볼 수 있다. 필압 역시 강한데 긴장의 변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나무그림에서 가는 선으로 즐거이표현은 무력감, 부적응과 부적절한 만족을 나타낸다. 43회기(그림44)에서는 크기가 전체적으로 크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자존감, 자기확대욕구, 공상적인 자아를 상징한다. 위치를 보면 중앙에 배치된 것은 정상적이고 안정된 상태임을 볼 수 있다. 나무그림에서 굵은 줄기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현실과 공상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열매의 등장은 강한 의존욕구, 지속성의 결여를 나타낸다.

초기단계(1회에서 10회)에는 연구자와 관계형성이 잘 안되어 언어표현이 서툴고 소극적이며 어색함과 경직된 표정을 갖고있었다. 작업과정에서는 서툴고 미숙하지만 미술활동에 흥미를 갖고있어서 산만하지 않고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물감채색시 시야가 넓지 못해 부분적으로 거칠게 덧칠하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중기단계(11회에서 41회)에는 얼굴표정이 조금 완화되어 보이고 색상이 밝아지고 안정적이며 평온한 심상을 표현하였다. 다양한 주제와 재료를 제시하여 작업에 대한 의욕과 흥미를 보였다. 아기소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고 유아적인 경향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작업과정에서 눈의 초점이 분명해졌고 작업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종결단계(42회에서 50회)에는 연구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생겼고 다양한 주제와 재료들에 흥미를 갖고 적응해 나갔다. 얼굴표정이 나타나지 않다가 얼굴모형을 제시하여 표정넣도록 지시적 기법을 사용하였더니 다양한 표정이 나왔으며 점토반죽 작업시 모방이 가능해졌고 자유연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유의지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해 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완성작품에 대한 애착과 성취감, 만족감이 강해졌다.

미술치료 실시 전과 후의 변화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미술치료 전·후 변화요약

	미술치료 전	미술치료 후
소근육 운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의 형태를 전혀 못 그림 · 필압이 지나치게 강함 · 크레파스 사용할때 거칠게 칠하며 잘 부러짐. · 물감 사용시 무감각하게 많이 째 · 만들기 활동이 느림 · 점토반죽시 손가락에 힘이 없다. · 미술재료사용이 익숙치 않음 · 종이 찢기가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겨 그리는 형태가 차츰다양해짐. · 필압조절이 능숙해짐. · 조심스럽게 칠함. · 물감을 적당히 째다. · 능숙해지면서 활동시간이 빨라짐 · 손가락힘이 강하고 적극적이다. · 미술재료사용이 능숙해짐. · 다양한 크기로 찢음.
눈과 손의 협응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그리기가 잘 안됨 · 가위 사용이 급하고 서툰 · 풀칠사용이 잘 안됨 · 모방이 잘 안됨. · 입체퍼즐맞추기가 전혀 안됨. · 바느질하기가 전혀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그리기가 능숙해짐. · 천천히 바르게 자름. · 풀칠사용이 나아짐. · 특징을 찾아 그리고 만듦. · 기초적인 입체퍼즐 맞추기가 가능. · 바느질 속도가 조금 능숙해짐.
자신감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선 맞추기가 안된다. · 말할때 입이 삐뚤어지고 손이 떨림 · 얼굴표정이 어색하고 표정변화가 없다. · 타인에게 스스로 인사하거나 말을 걸지 않는다. · 모든 행동에 있어서 소극적이어서 느리게 반응하였다. · 다리에 힘이 없어보이고 어색하게 걷는다. · 자발적인 언어표현이 부족하고 수동적이였다. · 고집이 세다 ·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 학원가기를 싫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선맞추는데 어색함이 없다. · 입모양이 자연스럽게 말하며 손떨림이 덜 하다. · 항상 얼굴표정이 밝은 편이고 감정에 따른 표정변화가 다양하다. · 보이는 사람마다 스스로 호칭을 붙이며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한다. · 미술활동시 항상 적극적이며 특히 흥미있는 작업활동시 지나치게 집착하고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림. · 활동적이며 잘 달린다. · 싫고 좋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였다. · 이해할수있게 말로 설명하면 받아들인다. · 또래아이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 친구들과 관계형성이 잘되어 학원가는데 즐거워한다.

<회기별 미술활동 작품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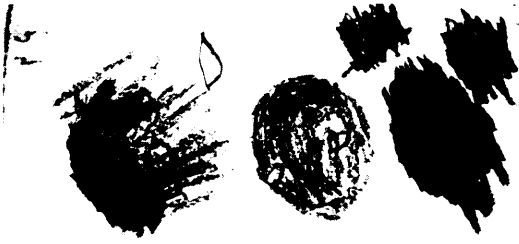


그림 1. 테두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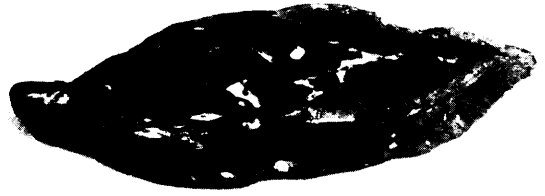


그림 2. 지점토로 만들기



그림 3. 색종이 찢어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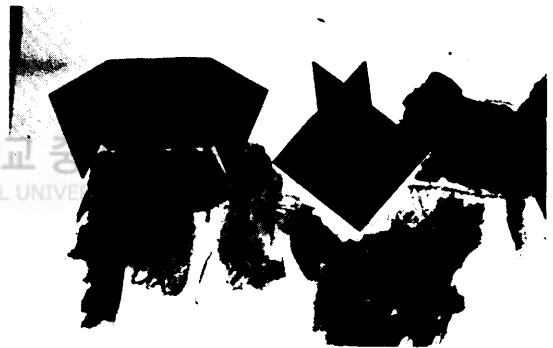


그림 4. 색종이 접기



그림 5. 물감붓기



그림 6. 선긋기-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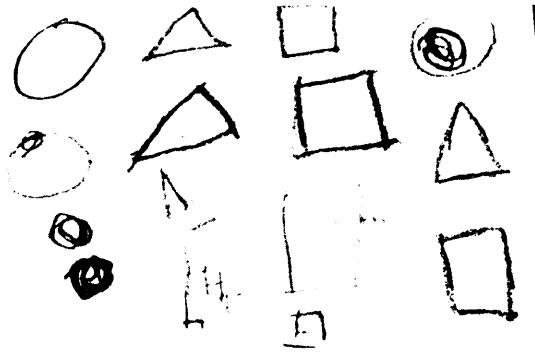


그림 7. 도형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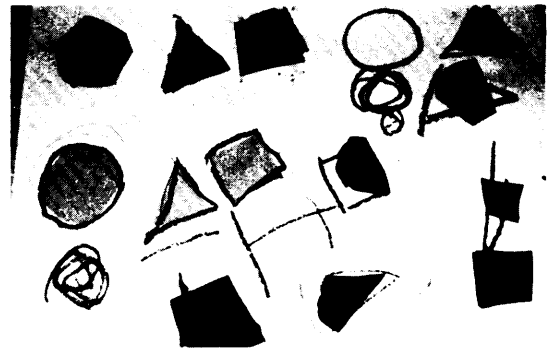


그림 8. 도형자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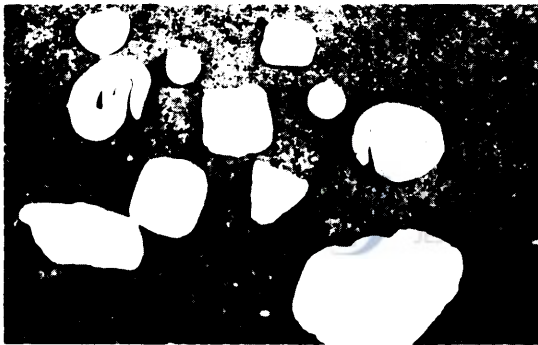


그림 9. 도형만들기



그림 10. 집, 나무꾸미기



그림 11. 면봉으로 그리기



그림 12. 스크래치



그림 13. 폴라쥬



그림 14. 데칼코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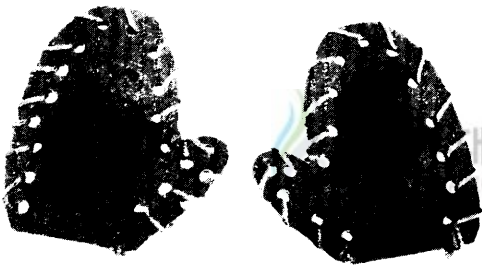


그림 15. 장갑만들기



그림 16. 자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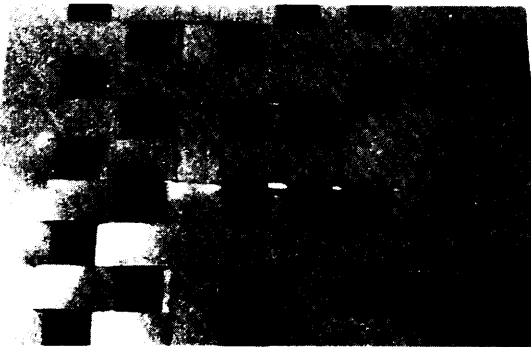


그림 17. 색테이프끼우기



그림 18. 모방화 - 가족



그림 19. 모방화 - 기린



그림 20. 모방화 -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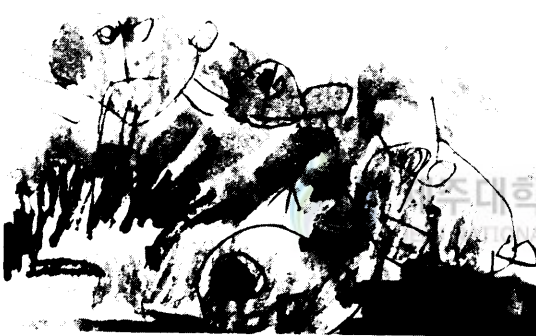


그림 21. 모방화 - 닭



그림 22. 스폰지로 무늬꾸미기



그림 23. 찰흙으로 만들기



그림 24. 가방만들기



그림 25. 모방화 - 오리



그림 26. 종이컵 꾸미기



그림 27. 지점토부조만들기



그림 28. 물감으로 색칠하기



그림 29. 먹물로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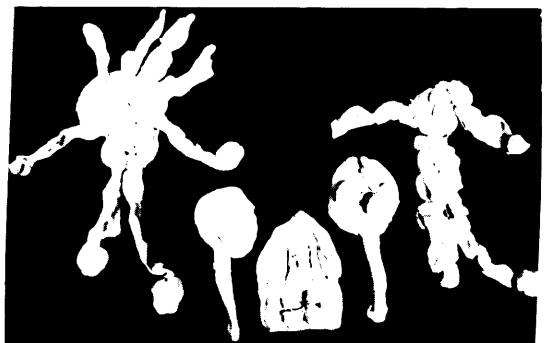


그림 30. 찰흙으로 만들기



그림 31. 모방화 - 풍경



그림 32. 모방화 - 인어공주



그림 33. 과일그리기



그림 34. 엄마,아빠표정그리기



그림 35. 색종이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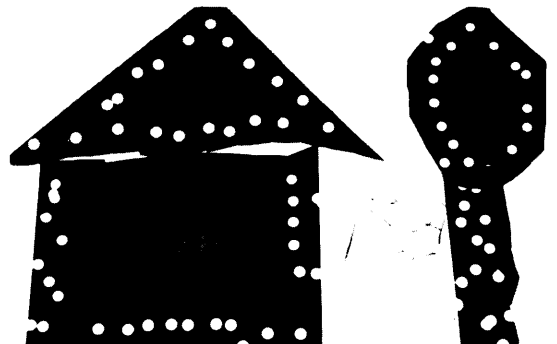


그림 36. 펀치로 뚫기



그림 37. 자기신체그리기



그림 38. 가면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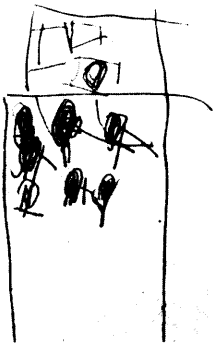


그림 39. 집, 나무, 사람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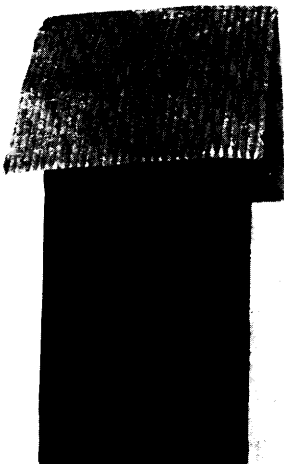


그림 40. 입체-집만들기



그림 41. 칼흙으로 신체만들기



그림 42. 나뭇잎찍기



그림 43. 손그리기



그림 44. 집, 나무, 사람그리기



그림 45. 쫓농떨어뜨리기



그림 46. 선생님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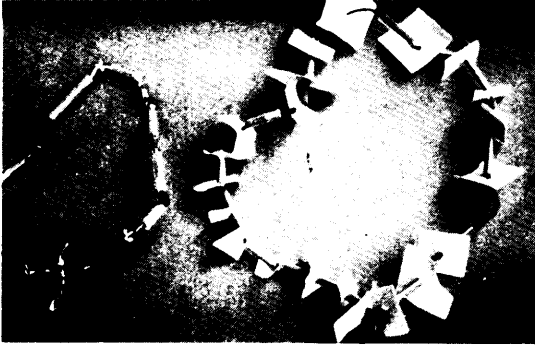


그림 47. 목걸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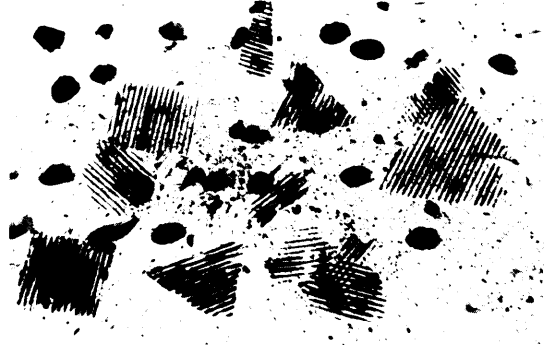


그림 48. 골판지로 찍기



그림 49. 물감 튕기기



그림 50. 지점토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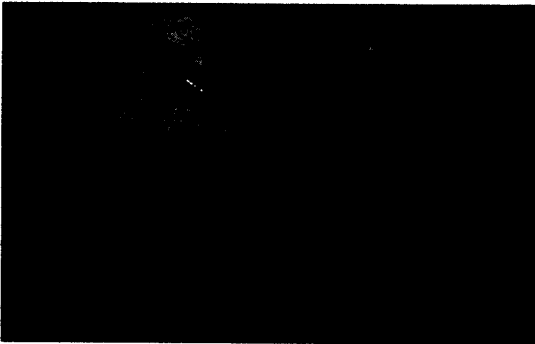


그림 51. 밀가루점토로 만들기



그림 52. 자유화

3. 소근육운동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대상 아동에게 적용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와 시지각발달검사(DTVP) 하위영역별의 사전, 사후, 추후검사 점수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6은 VMI와 DTVP 하위영역별 사전, 사후, 추후검사의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53은 VMI와 DTVP의 변화 그래프이다.

표 6. VMI와 DTVP하위영역별 사전, 사후, 추후검사 점수

검 사	VMI	시지각발달검사 (DTVP)				
		시각-운동 (VM)	도형-소지 (FG)	형의 항상성 (PC)	공간위치 (PS)	공간관계 (SR)
사 전	4	0	0	0	0	0
사 후	7	8	12	11	5	2
추 후	9	4	7	0	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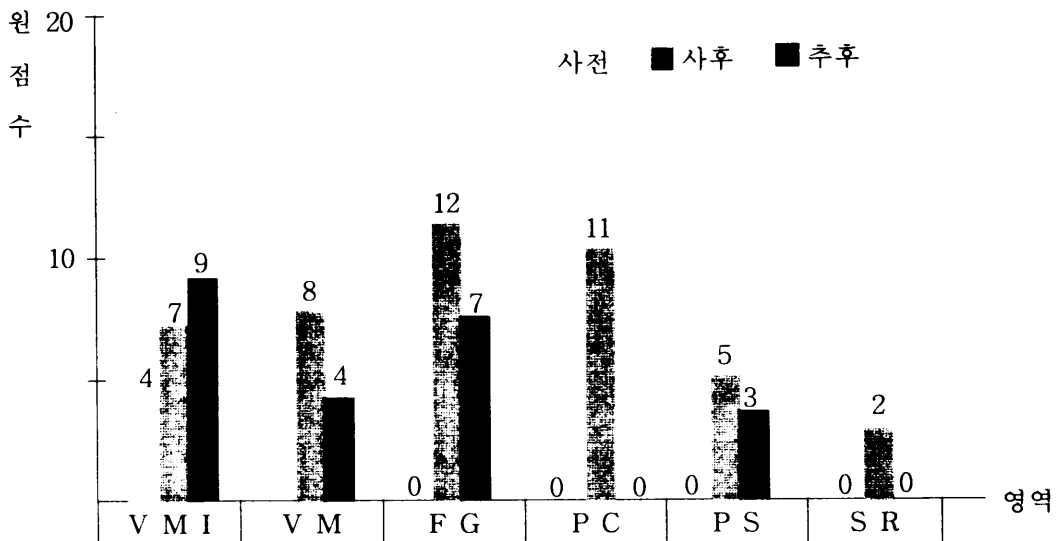


그림 53. VMI와 DTVP의 변화 그래프

1)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에서의 변화

프로그램 적용하기 전에는 VMI가 4점으로 수직, 수평선, 원 그리기만 가능하였고 교차선, 사선, 도형인지가 전혀 안되었으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나서 7점으로 도형 지각과 모방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을 보였다.

미술활동프로그램 종결 후 5개월간의 휴지기를 거쳐 소근육 운동능력이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후검사결과 9점으로 더 향상된 효과를 나타내어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소근육운동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였다.

2) 시지각발달검사(DTVP)에서의 변화

프로그램 적용하기 전에는 DTVP가 0점으로 선긋기에서 이탈되는 범위가 컸으며 선이 고르지 못하였고 도형인지와 표현이 전혀 안되었으나 프로그램 적용 후에는 탈범위가 감소되고 선의 방향, 선의 강도, 선의 연결성 등 선긋는 능력이 조금 향상되었고 도형지각하고 표현하는 향상을 보였다.

점과 점의 연결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이 연결되지 않거나 다른 점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순하고 기초적인 점의 연결에서는 이탈하는 경우가 적어져 향상을 보였다.

시지각발달검사에서 사전, 사후 득점차를 보면 상승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미술치료프로그램 종결 후 5개월간의 휴지기를 거쳐 소근육운동 능력이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후검사결과 득점율이 낮아진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인지체아의 특성상 짧은 집중력과 제한된 기억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정인지체아의 소근육운동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육가능급 정신지체아의 단일사례로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소근육 운동과 눈과 손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소근육 운동향상에 미친 효과는 시각-운동통합검사(VMI)와 시지각발달검사(DTVP)를 통해 사전·후, 추후검사의 원특점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해보며 소근육 운동능력이 향상됨으로 전반적인 기초 미술표현능력, 특히 선그리기, 도형그리기, 자르기, 물감채색하기 등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재료와 색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감정표현도 가능하게 되었다. 소근육운동향상은 시각-운동통합검사와 시지각발달검사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높은 상승효과를 보였으며 미술치료 프로그램 종결 후 5개월간의 휴지기를 거쳐 추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각운동통합검사에서는 더 향상되었지만 시지각발달검사에서는 검사 실시상에 대상아동의 짧은 집중력과 연구자의 경험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득점율을 나타내었다.

둘째, 미술치료 프로그램 과정중 연구자가 과제를 제시해주면 의존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눈과 손의 협응력향상으로 모방이 가능해지고 자유연상도 가능해짐에 따라 자발적이고 대담하게 표현해 나갔다.

셋째, 미술치료 프로그램 초기에 연구자와의 관계형성이 되기전에는 어색한 얼굴표정과 불안한 감정으로 표현활동이 소극적이었는데 소근육 운동능력과 눈과손의 협응력의 향상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표현활동이 됨으로써 불안한 감정이 해소되고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아졌다.

넷째, 미술치료 프로그램 중 만들기와 점토조작의 도입은 손가락 기능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행동을 촉진시키는데 활기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의 소근육 운동능력과 눈과 손의 협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양한 소재와 재료로 선긋기,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하여 정신지체아의 다양한 조형활동을 체험하는 동안 소근육 운동과 눈과손의 협응력 향상을 시켰다. 본 연구의 활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교육가능급 정신지체아 1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 사례연구로 대상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방법은 단기 기간동안의 50회 미술치료프로그램을 3단계로 m 구조화시켜 실시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 적용할 다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지도방법의 연구가 더 깊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지체아의 성별, 나이별, 증상정도별 등 아동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접근으로 소근육 운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단일사례지만 소근육 운동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신지체아에게 개별적으로 알맞게 구성하여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소근육 운동향상은 물론 자신감, 성취감을 줄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내서

<단행본>

- 강위영, 정대영, 박찬웅 편 (1993),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소근육 운동기능발달」, 서울:도서출판 특수교육.
- 구본권 외(1990), 「특수교육학」, 서울:교육과학사.
- 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편(1993), 「가족미술치료」, 대구:동화문화사.
- 권상구(1991), 「아동미술교육」, 서울:미진사.
- 김광웅, 방은영(1992), 「아동발달」, 서울:형설출판사.
- 김경중, 최인숙(1992), 「유아발달심리」, 서울:형설출판사.
- 김동연, 공마리아 편(1998), 「인물화에 의한 성격진단법」, 한국미술치료학회.
- 김동연, 공마리아 편(1998), 「인물화 및 집·나무·사람그림에 의한 심리진단법」, 한국미술치료학회.
- 김동연, 정현희 편(1997), 「동그라미 중심가족화에 의한 심리진단과 치료」,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영한(1990), 「정신지체아의 심리」, 서울: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재은(1995),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교육과학사.
- 김재은(1992), 「유아를 위한 예술교육」, 샘터유아교육신서.
- 김재은, 김동극, 여광웅(1997), 「인물화에 의한 간편지능검사」, 서울:교육과학사.
- 김 정(1991), 「아동미술교육 연구」, 서울:창지사.
- 김 정(1989), 「아동회화의 이해」, 서울:창지사.
- 김 정(1989), 「미술교육총론」, 서울:동아출판사.

- 김 정(1991), 「유아미술지도」, 서울:창지사.
- 김정권, 여광응, 이상현, 조인수 편(1993), 「정신지체아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성원사.
- 김정권, 여광응, 이상현, 조인수 편(1998), 「정신지체아교육과 지도의 실제」, 서울:양서원.
- 김태련·송영혜·우종태(1993), 「나무그림검사」,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김춘일(1985), 「아동미술론」, 서울:미진사.
- 김춘일(1984), 「미술교육론」, 서울:기린원.
- 박금숙·이은순(1993), 「아동는 그림으로 말한다」, 서울:여성사.
- 박화문 외(1987), 「장애유아의 발달과 교육」, 서울:창지사.
- 송영혜(1993), 「발달장애진단의 이론과 사례」 서울:특수교육.
- 송영혜(1997), 「정서장애진단사례집」, 서울:특수교육.
-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1997), 「유아미술교육학」, 서울:학문사.
- 유아미술연구회 편 (1993), 「유아미술교육」, 서울:박문사.
- 이은화 외(1995), 「한국4세유아의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창지사.
- 인간발달·복지연구소 편(1994), 「내마음을 읽어주세요」, 서울:중앙적출판사.
- 장연집(1994), 「아동이 그린 기족화 분석」, 서울:교문사.
- 정대식(1991), 「아동미술의 심리연구」, 서울:미진사.
- 조복희 외(1989), 「인간발달-발달심리적 접근」, 서울:박문사.
- 조윤경 외(1991), 「장애아동의 소근육운동과 미술지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조희숙 외(1994), 「아동발달의 심리」, 서울:학지사.
- 차동채·김춘일(1988), 「아동미술의 지도와 이해」, 서울:미진사.
- 한국미술치료학회 편(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동아문화사.
- 한국인간발달학회 편(1995), 「유아의 심리」, 서울:중앙적성출판사.

한국정신지체아교육연구회 편(1997), 「특수아동의교육·심리진단이론과 실제
서울:특수교육.

한기정(1997), 「아동미술과 특수아동미술」, 서울:교육과학사.

한기정(1984),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아동 조기교육」, 서울:보육사.

<논문>

김삼성(1993), “정신지체아의 공간개념에 대한 발달특징”, 석사학위논문, 대구
대 교육대학원.

김성해(1995), “정신지체아의 자화상 크기에 따른 자아개념 특성”, 석사 학위
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김수미(1997), “정신지체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탐색행동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김희경(1992), “뇌성마비 아동의 조형활동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 교육대학원.

남정현(1997), “소조활동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아동의 시각-운동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문혜숙(1998), “집단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EQ함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

박영희(1993), “인물화의 분석을 통한 정신지체아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 교육대학원.

신혜진(1997),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의 긍정적 장애개념형성
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육수길(1997), “교육가능 정신지체아의 자유화에 나타난 중첩표현의 특성분
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윤경미(1994), “만성 정신분열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요법 사례연구”, 석사
학위논문, 홍익대 교육대학원.

이선미(1996), “감각통합훈련이 정인지체아의 운동능력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최은영(1994), “소조활동을 통한 미술치료가 자폐성아동의 대상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

한정애(1997), “시각-운동훈련이 정인지체아의 주의집중행동과 지각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기타문헌>

김동연(1994), “미술치료 어떻게 할것인가?”, 미술세계 4월호.

김동연(1998), “장애아동의 미술치료” 제22회 미술치료 연수회자료집, 한국 미술치료학회.

김진숙(1995), “미술치료란 무엇인가?”, 미술세계 10월호.

문장원(1994), “미술치료의 발달적 인지적 접근” 제3회 미술치료 연수회 자료 집, 한국미술치료학회.

여광웅(1998), “장애아동의 심리와 미술” 제20회 미술치료 연수회자료집, 한국 미술치료학회.

윤정방(1994), “정인지체아의 묘화표현특성과 미술의 활동” 제3회 미술치료 연수회자료집, 한국미술치료학회.

장연집(1994), “창조적 상징과정을 통한 치유” 제20회 미술치료 연수회 자료 집, 한국미술치료학회.

<번역서>

나카니시 요시오(1996), 「그림으로 읽는 아이들의 마음」, 서울:사계절.

도널드 베일리,마크 윌러리(1995),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 이소현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로버트 번스(1998), 「동적집-나무-사람그림검사」, 김상식 역, 서울:도서출판 하나의학사.
- 루돌프 아른하임(1995),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서울:미진사.
- 미국정신의학회 편(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이근후 외 역, 서울:도서출판 하나의학사.
- 수잔 핀처(1998),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김진숙 역, 서울:학지사.
- Marianne Frostig(1997), 「시지각발달검사(DTVP)」, 여광웅역, 서울:특수교육.
- 윌리엄 M. 크릭생크 편(1985), 「특수아동심리학」, 신현순 역, 이화여자 대학교출판부.
- E.P.코헨·R.S.게이너(1992), 「아동미술교육의 실제」, 서울교육대학교 미술 교육 연구회 역, 서울:미진사.
- Eliot W. Eisner(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 교육연구회 역, 서울:도서출판 예경
- V. Lowenfeld, 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 연구회 역, 서울:미진사
- 파버 비렌(1996), 「색채의 영향」, 김진한 역, 서울:시공사.
- Keith E.Beery(199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박화문,구본권 역, 서울: 특수교육.
- 한스 마이어(1997), 「미술교육의 세계」, 김 정 역, 서울:교육과학사.

< Abstract >

The Effectiveness of Art Therapy in Improving Mental Retardation Fine-Motor

Kim, Mi-Seon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ng-Hwan



The basic prerequisite of art therapy is to solve complications from drawing a picture that makes or gives more strength of concentrations herself. Also added to this, it makes her more objectl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how much effect to give to mental retardation through Art Therapy program that improve fine -motor and eye-hand cordinati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case study are used the method in this study. In case study, patient was seven years old child Who was under medical treatment in a Rehabilitation Center. The art therapy treatmen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1999, 2,

against on the patient was performed twice a week and a total of fifty time for a short time from nine September nineteen ninety-seven to twenty eight May nineteen ninety-eight.

Each treatment time was limited to thirty minutes. The first phase from one to ten times was focussed on interest for the fine art and relationship formation.

The middle level has been executed a program assisting fine - motor from eleven to forty-one tested.

The purpose of this stage was to gives a chance of representation in order to raise a eye-hand cordination.

The last phase from forty-two number of time to fifty aims for relaxing a sense of unease and having confidence according as representation activity is more voluntary and positive.

The article for mental retardation has been studied under the insufficient condition.

As a result of this article, the fine-art representation activity was warrented all mental retardation to feel free to expression of herself and emotional complication.

This article is required for more effective and continuous program approach by more further studies.